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01······	
	대학교.pdf_page_002······	
	대학교.pdf_page_003···································	
아 달앙	대학교.pdf_page_004·······	4
아 발양	대학교.pdf_page_005·····	5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06·····	6
	대학교.pdf_page_007·····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08·····	8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09·····	9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10·····	10
아믹양	대학교.pdf_page_011······	
아민야	대학교.pdf_page_012····································	
	대학교.pdf_page_013····································	
	대학교.pdf_page_014····································	
	대학교.pdf_page_015······	
	대학교.pdf_page_016·····	
	대학교.pdf_page_017·····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18·····	18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19·····	19
	대학교.pdf_page_020·····	
아 밀양1	대학교.pdf_page_021······	21
아믹양	대학교.pdf_page_022······	22
	대학교.pdf_page_023·······	
	대학교.pdf_page_024····································	
	대학교.pdf_page_025	
	대학교.pdf_page_026······	
	대학교.pdf_page_027······	
	대학교.pdf_page_028·····	
	대학교.pdf_page_029·····	29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30·····	30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31·····	31
	대학교.pdf_page_032·····	
	대학교.pdf_page_033·····	
	대한교.pdf_page_034······	
	대학교.pdf_page_035······	
	대학교.pdf_page_036····································	
이 되어	대학교.pdf_page_037····································	
이 되었다	대역교.pdi_page_037 대학교.pdf_page_038······	ა <i>1</i> ეი
아 달장	대학교.pai_page_038	38
아 말앙	대학교.pdf_page_039·····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40·····	40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41·····	41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42·····	42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43······	43
아 밀양미	대학교.pdf page 044······	44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45·····	45
아믹양	대학교.pdf_page_046······	
아믹양	대학교.pdf_page_047······	
시 되야	대학교.pdf_page_048····································	π7 ۸0
시 되어	대학교.pdi_page_046 대학교.pdf_page_049······	40
이 되었	내약╨.pdf_page_049************************************	49
아 발생	네 딱 ╨.pui_page_U5U'''''''''''''''''''''''''''''''''''	50
아 빌양	대학교.pdf_page_051·····	51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52·····	52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53·····	53
아 밀양	대학교.pdf_page_054·····	54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55·····	55
아 밀양미	대학교.pdf_page_056······	56
아밀양미	대학교.pdf_page_057······	57
아밀양	대학교.pdf_page_058·······	52 52
, = 0.	"	3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59·····	58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1······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2······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3······	63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4	64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5······	65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6·····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7·····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8·····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69·····	69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0······	7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1·····	71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2·····	72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3·····	73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4·····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5·····	75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6·····	76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7·····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8······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79·····	79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1······	81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2·····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3······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4·····	84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5····	85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6·····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7·····	87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8·····	88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89·····	89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0·····	9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1·····	91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2·····	92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3·····	93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4······	94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5·····	95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6·····	96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7·····	97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8·····	98
아 밀양대학교.pdf_page_099·····	99
아 밀양대학교.pdf_page_100·····	100
아 밀양대학교.pdf_page_101·····	101

사진으로 본 82년

부산대학교

대학교 대학흥보실 편

K3225220







訊為豐程

82년의 전통을 이끌어 온 밀양대학교가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학은 1924년 5월 6일 밀양공립농잠학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6년제 밀양공립농잠중학교로 되었고 1950년도에는 밀양농잠고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1960년에는 밀양실업고등학교, '69년에는 5년제 잠사고등전문학교, '74년에는 2년제 잠사전문학교, '79년에는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93년에는 4년제 산업대학으

로 승격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최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갖춘 새

캠퍼스를 마련함으로써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대학의 통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문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고 사실상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 한편에 서운한 느낌이 남아 있는 것은 수차례의 학제개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밀양"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기때문인 것 같습니다.

밀양대학교에 몸담으셨던 동문들, 밀양대학교를 아껴 주시고 키워 주신 모든 분들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가 이 화보집을 바칩니다.

2006년 2월

밀양대학교 총장 **이 상 학**

MIRYANG NATIONAL UNIVERSITY





모교 82년을 돌아보며

모교 82년 역사의 흔적을 사진으로 집대성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총동문을 대표하여 간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들은 근 한 세기에 걸쳐 모교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 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진기하고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모교는 82년의 역사를 끝으로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통합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교는 이전에도 여러 모습으로 변화를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 와 성장이 거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합이 부디 우리 동문들에게 더 큰 긍지를 심어주고 계속 모교의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한 시대의 획을 그으며 모교 82년의 역사는 한권의 사진첩 속으로 물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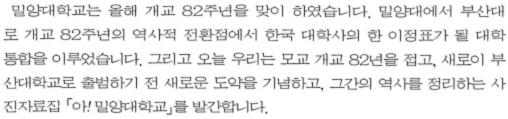
사진으로나마 모교가 모든 동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랑스럽게 기억되 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먼 훗날 우리의 사랑스런 후배들이 이 한 권의 사진첩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연 어떤 토양 속에서 자란 열매들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모교 82년간의 사진첩 간행을 축하합니다.

2006년 2월 밀양대학교 총동문회장 **임 수 복**

사진으로 본 82년 **아! 밀양대학교**를 발간하며



오늘 발간되는 이 사진집은 과거의 시간이 단순한 기억의 편린이 아니며, 위대한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오늘의 밀양대인을 떠받쳐 주고자 합니다.

밀양대학교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인 자율·창의·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적인 단합과 인격적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전통을 이어받아 다른 미래를 기획하고, 열린 미래를 응시하며 구체적인 현실속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자기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밀양대학교는 82년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영원히 빛날 천년의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밀양대학교는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이 되리라 봅니다.

82년의 전통과 새로이 도약하는 통합부산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정신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으면서 우리의 소박한 이 열매가 미래에 더욱 더 큰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 밑양대 가족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가시화 되어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이 성과가 모교를 사랑하는 밀양 대인의 마음에 닿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봅니다.

우리대학의 희망찬 내일을 기원하며, 오늘 이 화보집이 새로이 세계로 응비하는 힘찬 발걸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화보집 발간의 기회를 주신 이상학 총장님, 임수복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밀양대 모든 가족들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06년 2월 편찬위원장 **김 이 태**



- 5 발간사
- 6 축사
- 7 편찬사
- 10 밀양학교 연혁
- 11 교기·교훈
- 12 교가
- 13 심벌, 교목·교화
- 15 시대에 따른 변천사
 - 학교상징물
 - 설립인가 · 승격
 - 교사의 변천
 - 역대 교장·학장·총장

- 51 그시절 학교 생활
 - 중학교시기(1924~1949)
 - 고등학교시기(1950~1968)
 - − 전문학교 · 대학시기(1969~1992)
 - 4년제대학 시기(1993~2006)
- 113 추억의 앨범
 - 졸업사진
 - 밀양의 옛모습
- 143 성장과 도약의 시대
 - 캠퍼스 이전
 - 국제화·세계화
 - 대외교류
- 167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다
 -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 신문기사를 통해 본 통합과정
- 183 학보를 통해본 밀양대학교의 역사(1981~2006)

밀양대학교 연혁

1923년	11월 17	일 학교설치인가, 명칭 密陽公立農蠶學校, 수업연한 3개년, 학급수 3학급 정원 150명
1924년	5월 6	일 개교
1927년		. :
1944년	4월 1	일 학칙변경인가(甲種 승격) 수업연한 4개년 학급 수 4학급 생도정원 200명
1946년	9월 1	일 학제변경에 의하여 밀양공립농잠중학교로 개명, 수업연한 6개년, 7학급 350명
1947년	8월 22	일 교사(내이동 본관 6교실) 증축공사 착공
1950년	5월 17	일 교육법 실시에 의하여 본교에 고등학교병설인가, 밀양농잠고등학교, 학급수 6학급 잠업과, 농업과 각 3학급 학생수 300명
1959년	11월 30)일 학칙변경 인가. 밀양실업고등학교, 학급수 24학급 (농업과, 잠업과, 축산과, 상업과 각6학급) 학생정원 1,200명
1960년	4월 1	일 밀양실업고등학교로 개편 발족. 밀양상업고등학교를 병합하고, 병설중학교를 밀양중학교에 이양
1968년	12월 17	일 밀양잠사고등전문학교로 승격 인가(수업연한 5개년, 잠업과 5학급, 제사과 5학급), 학생정원 400명
1973년	12월 19	일 잠사고등전문학교를 잠사전문학교로 개편인가, 수업연한 2개년, 잠업과 2학급, 제사과 2학급, 총 4학급, 학생정원 160명
1975년	12월 31	일 교육법시행령 학칙변경인가 밀양농잠전문학교, 수업연한 2개 학급수 10(잠업과 2, 제사과 4, 농업과 2 토목과 2 농가정과 2), 정원 400명
1979년	1월 1	일 밀양농잠전문대학(2년제) 개편 인가
1991년	3월 1	일 대통령령 13322호 국립대학 설치령 개정으로 밀양농잠전문대학교를 밀양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3년	3월 1	일 밀양산업대학교 개교(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대통령령 제13859호-1993.2.24
1999년	3월 1	일 밀양대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6093호, 1998. 12. 31)
2005년	3월 9	9일 밀양대학교 새캠퍼스(삼랑진읍 청학리)로 이전
2005년	3월 31	일 부산대학교와 통합 합의각서 조인
2005년	9월 28	3일 교육부로부터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승인



교훈







교목・교화



매화



시대에 따른 변천사

• 학교상징물

• 설립인가 · 승격

•교사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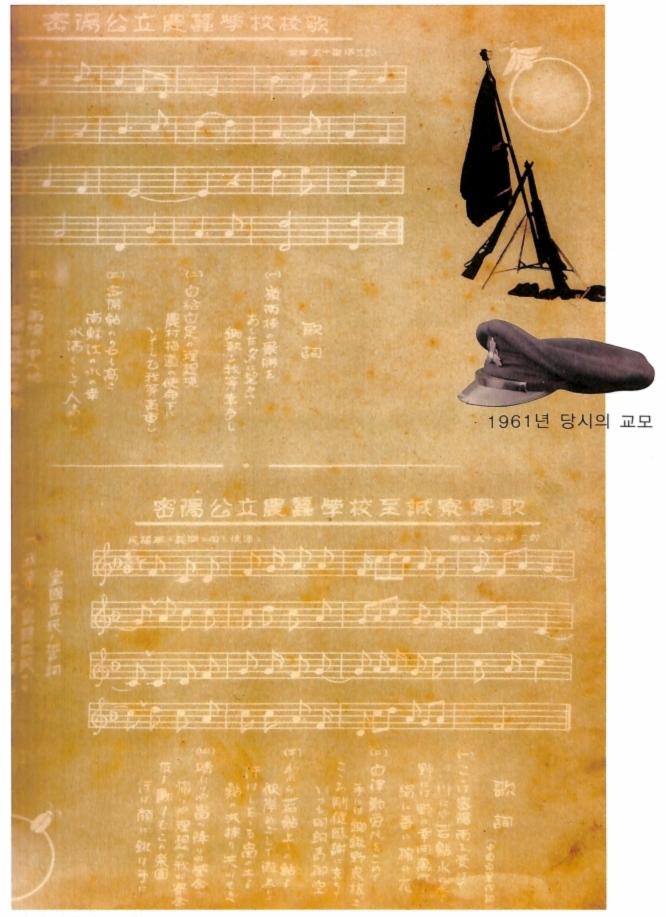
• 역대 교장·학장·총장

1

학교상징물 | 학교기의 변천

일제시대 교가





일제시대의 교가

학교상징물 | 각종 기념 페넌트

설립인가 · 승격





















밀양잠사고등전문학교(5년제)승격 축하현수막(1969년)

설립인가 · 승격



밀양잠사고등학교 승격기념 동창회 모임(1969. 3. 25)



집밀양산업대학승격경축제전 일시 / 1992년 2월 23일 (일요일) 13시 장소/남천강변 고수부지 특설무대 밀양산업대학승격추진위원회

산업대학 승격 경축 제전 초청장 표지

설립인가·승격

실의 1041 경상당도 교육위원회

1. 관리 1041-1039 (73. 12. 6)로 신청한 및양장사 전문학교의 설립 연기를 교육성 제 85조의 규정에 의기 다음과 값이 연가한다.

12-91

가. 독적 : 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 하며 제속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건 식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 나. 설립자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 다. 명 청 : 밓양장사진문학교
- 마. 위 시: 경상남도 말양군 말양읍 네이동 1028
- 마.수 없닌한: 2년
- 마. 입학자건: 교육병 제 128초의 8에 규정된 자각

대: 일

전문학교 설립인가서(1973)

입양장사건된학교 귀고에서 신청한 학회년경의 일을 교육법시행정 위상 조 제 2 항의 귀장에 의하여 다음 1975 년 12월 31 가, 학식 제 5조의 설치학과 학급은 교육 기계 시한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학과	총 정 원		학년당 정 첫	
2 11 4 4	对古今	학생수	专首个	育分十
참 왜 각	2	80	1	40
시사과	4	160	2	80
업무목과 .	2	80	1	40
F. 업가정각	5 -	80	1	40
7	10	400	5	200
	THE REAL			NAME OF THE PARTY OF
		100		
	1000000000000	SERVICE AND	DELIVER OF SHE	DELIGIBLE POR

전문학교 학칙변경 인가서(1975)

전문대학 개편 인가서(1979)

도 교육위원회

교육법 (법률 제 3054호) · 부처 제고조의 귀점에 의하여 위치 경영하는 BISIS 장전문학교를

다음과 같이 전문대학으로 처편인가 한다.

인가

८ द म : म पाचेर पारेर्य ग्रम्भ रमे नेत वीला धेर केल 국가 산업 병전이 원요함 전문적인 지시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계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중선적업양을 양성 참을 목적으로 한다.

2. 명 정 : 일양 농장전 문 대 학

4 개고년원일: 79. 3. / 5. 하 최 : 별용과 같다.

1. 긔 위원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말양진문대략의 4년제 대학송국"견의 면면서류가 우리부에 처리도록 이참되었기에 다음과 값이 최신합니다.

수신 경남 명양시 네이동 1028 없양진문대 승객주진때면의 박명석

110 - 760 서용 중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전화(720 - 3330) /전용(739 - 9308)

- 가. 교육부는 밀양전문대학등 4개 국범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계편에 대하여, 선거공약의 여행차원역시 진문대학은 4년째대학으로 승격하되, 양교 구성원 및 지역주민동 어때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인근 국방대학의 단과대학 영대로 개변하는 방향으로 경토,
- . 나. 그러나 일양전문대학과 장원대학교의 경우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양교의 합의에 의한 동양신청시가 제출되지 아니아이 등 업무주진에 어떠움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부 의 기본방창에 따른 앞의가 이루어진 뭐 동안산청사를 제충해 오면 동안되면을 검토할 수
- 다. 아울어, 앞양진문대학의 4년제대학 계면에 대학에는 그 필요성에 인정되므 로 망대학간에 업의가 어디지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 우리부가 추진증인 산업대학(기방대학)



等效好对 蒙

4년제 대학승격 통보공문(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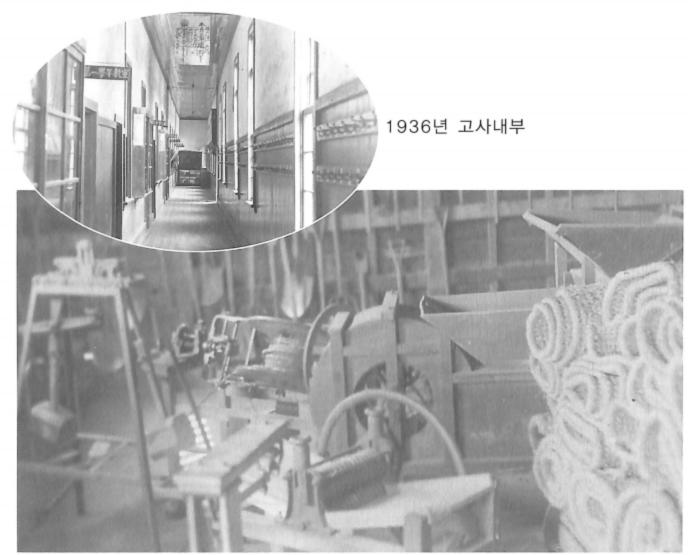
1936년 학교 전경



사진으로 본 82년사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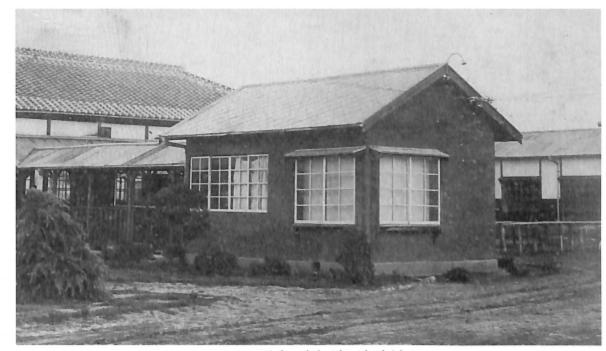
1936년 기숙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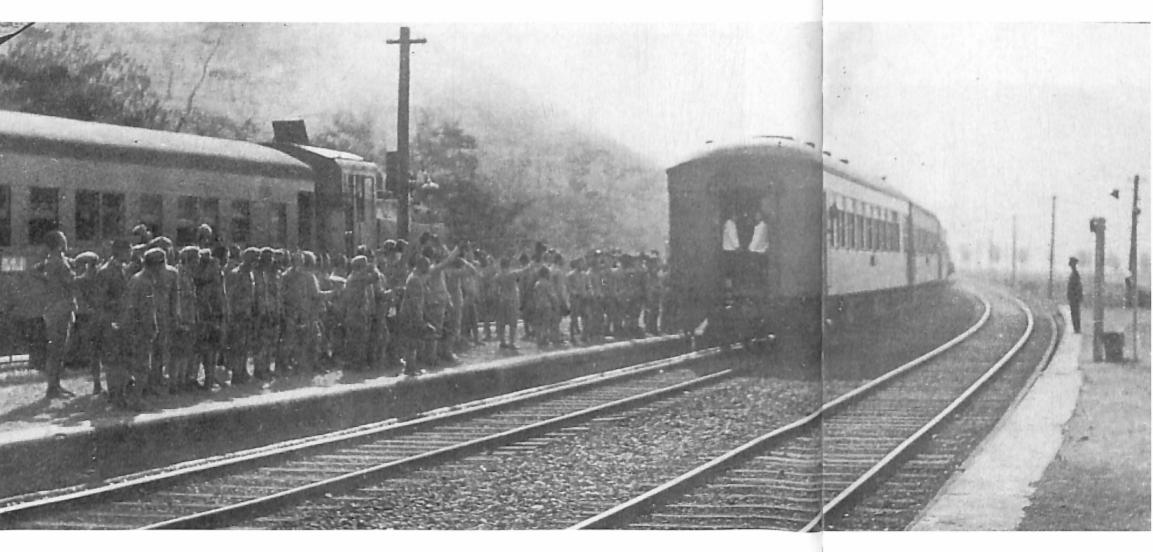
1936년 농기구실



1940년 교무실 전경



1940년 기숙사 사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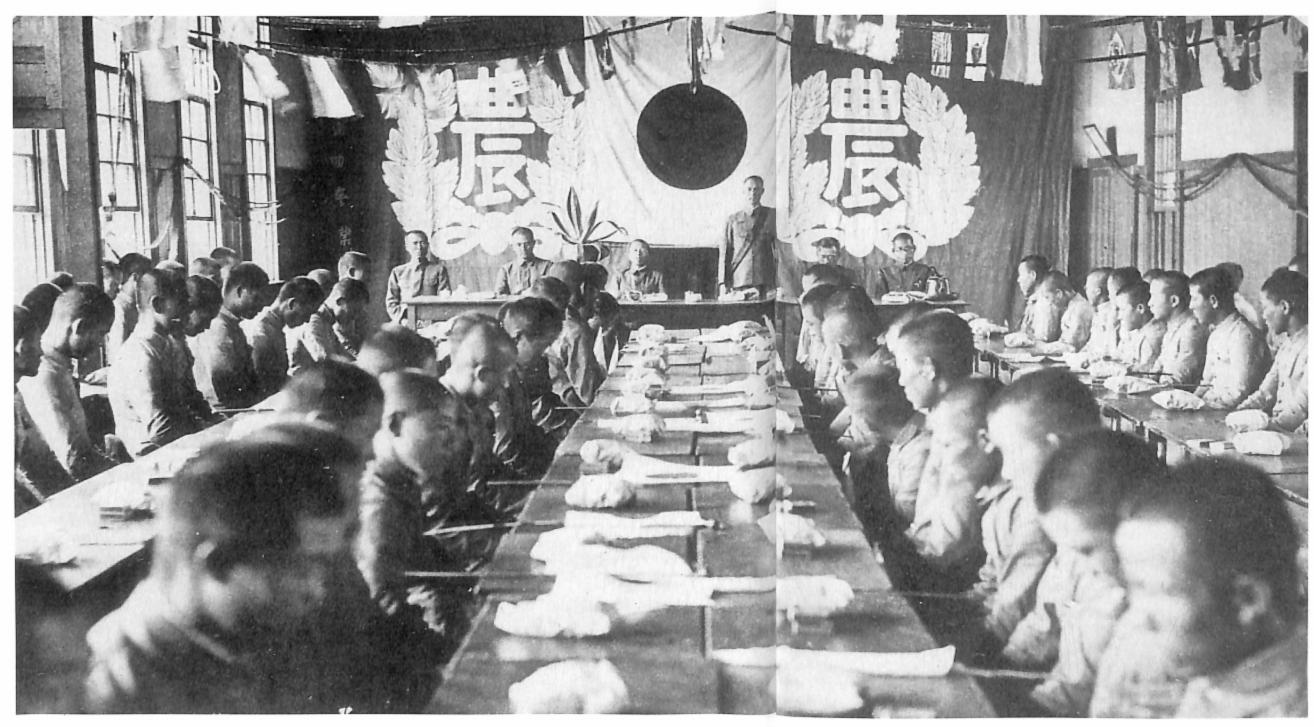
교장 전근 전송 장면(1940)



1940년 기숙사 앞에서 사생기념 촬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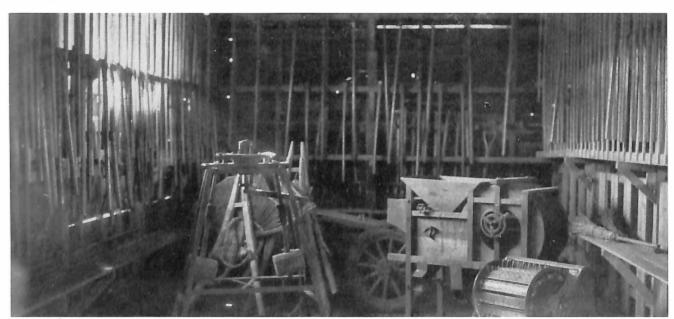
1940년 기숙사 앞에서 사생기념 촬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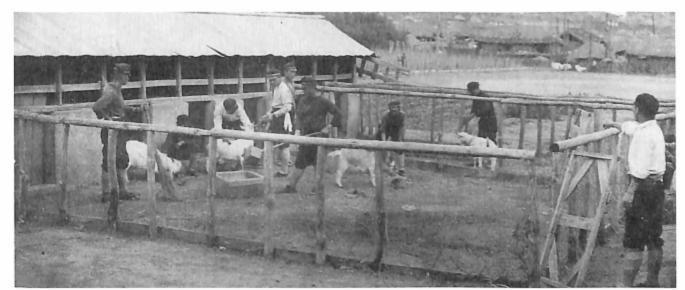
교사 출정 축하식사 장면(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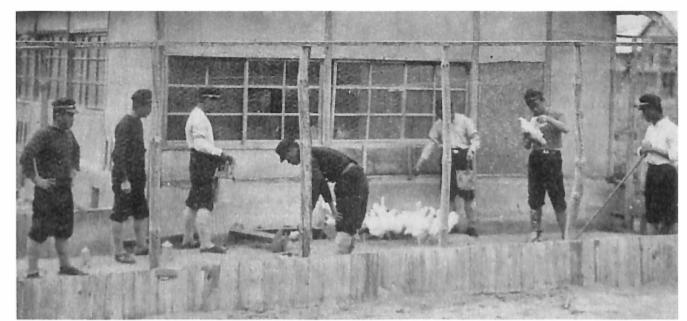
학교 농장전경(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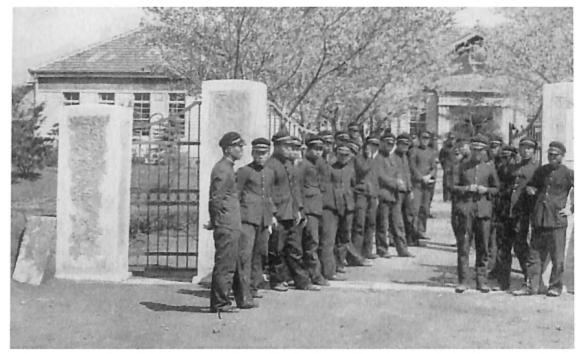
학교 농기구실(1940)



학교 축사(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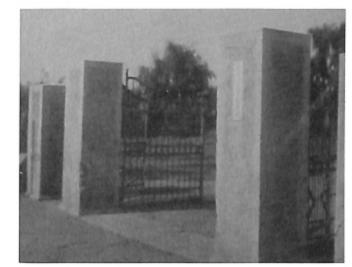
학교 계사에서의 사육모습(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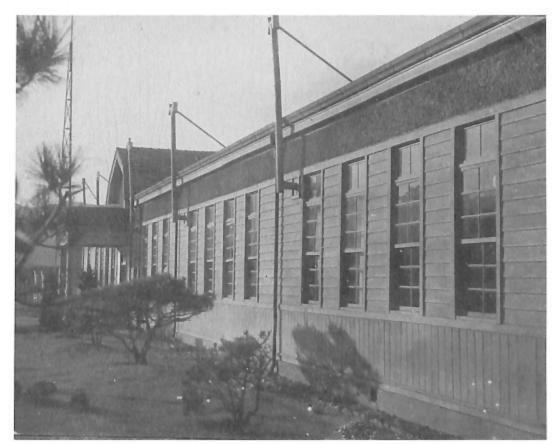
학교 교문(1940)



구매부(1940)



교문(1941)



교사(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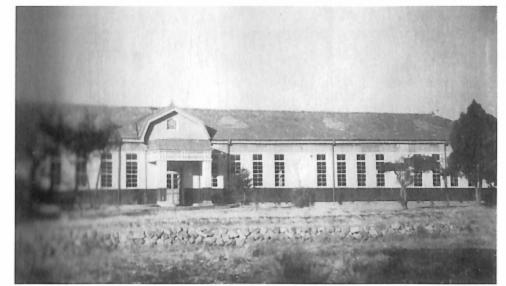
교무실(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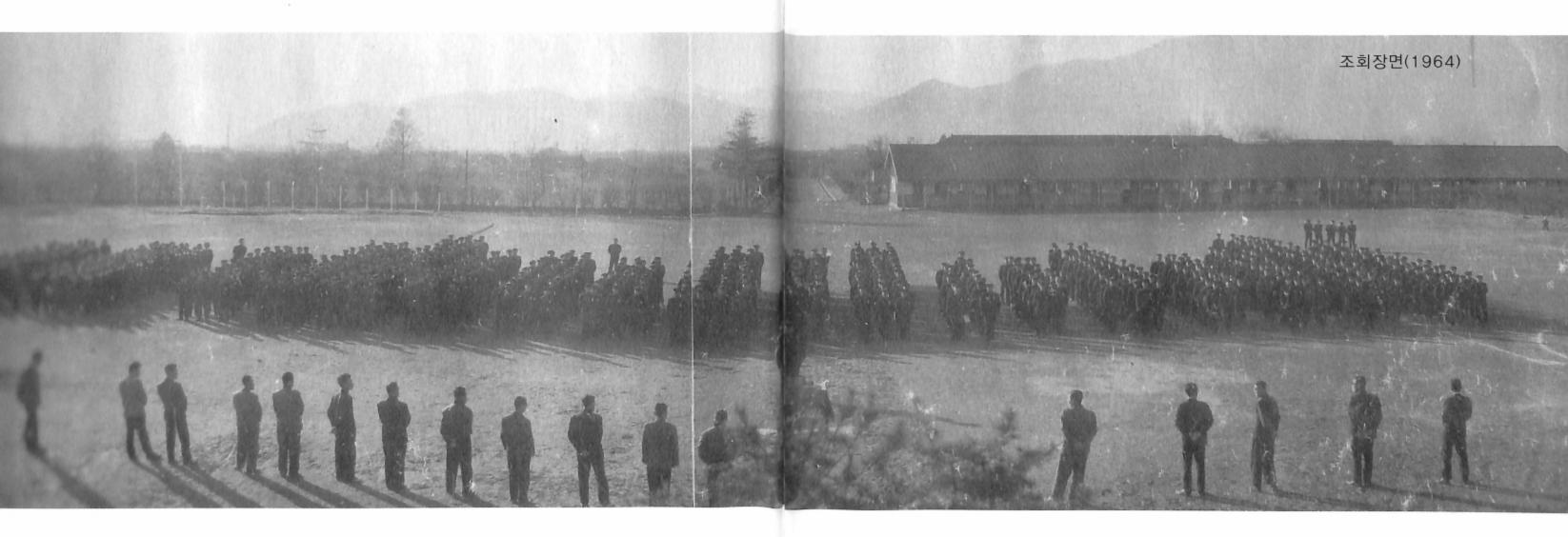
교사전경(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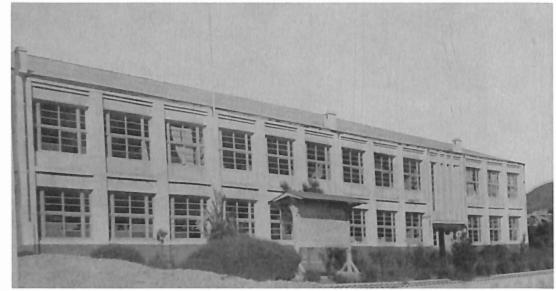


본관전경(1963)



구관전경(1963)





1970년 당시(밀양잠사전문학교)의 교사 전경-1



1970년 당시(밀양잠사전문학교)의 교사 전경-2



교내뽕밭(1975)



제사공장(1975)



잠실모습(1975)



교사전경(1978)



실습농장(1988)

도서관 서고(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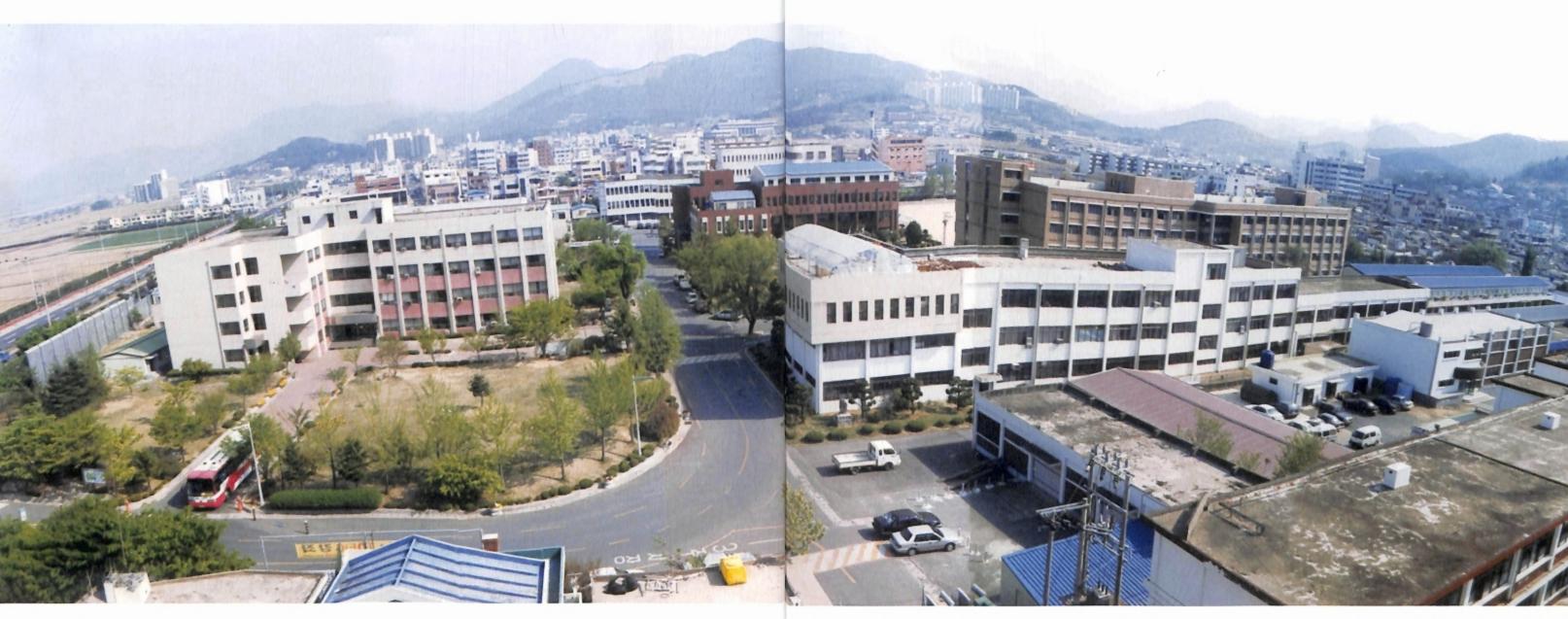


도서관 모습(1983)



교문-내이동(1984)

. 사진으로 본 82년사 | **43**



내이캠퍼스 전경



46 | 아 / 밀양대학교

역대 교장·학장·총장



2대 교장 **川明一郎** (1929,12,6~1936,4,21)



3대 교장 八木五甲 (1936,12,4~1939,8,24)



4대 교장 **杉原富次朗** (1939,8,24~1945,3,31)



16·17대 교장 **姜允吉** (1969,3.5~1974,7.5)



18대 교장 徐圭大 (1974.7.20~1979.2.28)



초대학장 **金織鏞** (1979.3.21~1983.3.20)



6대 교장 **權泰觀** (1946.8.13~1947.12.1)



8대 교장 姜 詳 (1949,3.15~1954.2.8)



10대 교장 金康民 (1955,2,17~1956,5,29)



2·3대 학장 尹載孝 (1983.3.21~1989.3.20)



4대 학장(초대총장) **鄭都燮** (1989.8.23~1997.3.30)



2대 총장 **李成煥** (1997.3.31~2001.3.30)



11대 교장 崔炯鍊 (1956.6.9~1960.7.5)



14대 교장 梁 洛 (1962.6.27~1966.6.16)



15대 교장 **閔泳賢** (1966,7,20~1968,5,21)



3대 총장 **崔泰吉** (2001.3.31~2005.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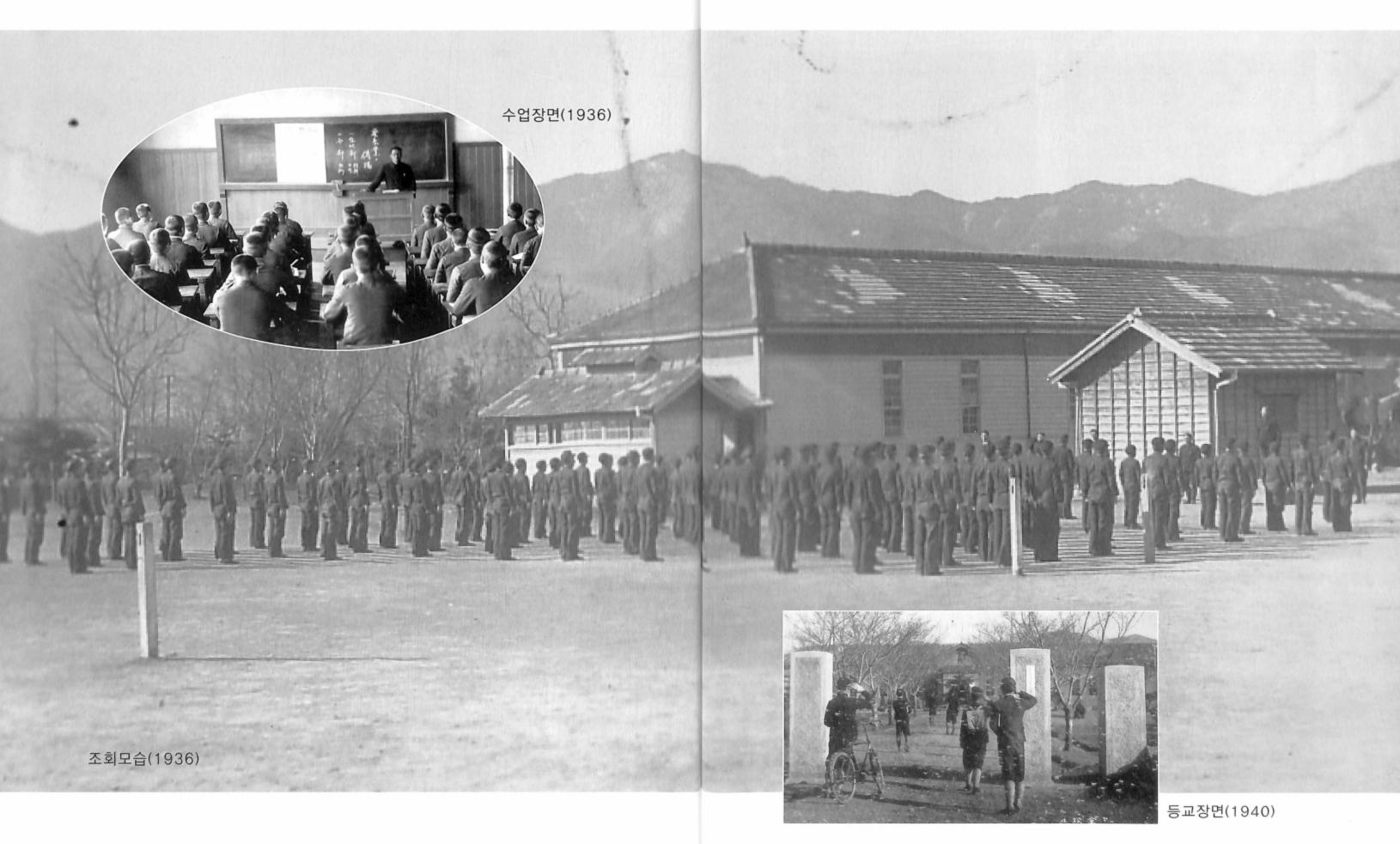


4대 총장 **李 相 學** (2005.3.31~2006.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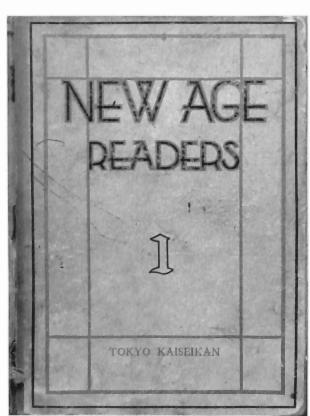
그 시절 학교 생활 2

- 중학교시기(1924~1949)
- 고등학교시기(1950~1968)
- 전문학교 · 대학시기(1969~1992)
 - 4년제대학 시기(1993~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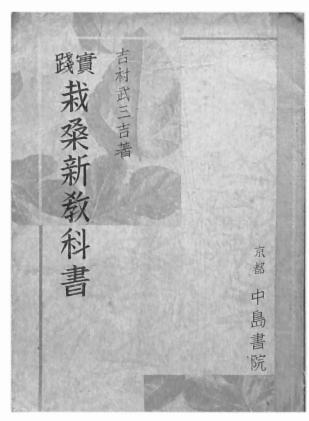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교과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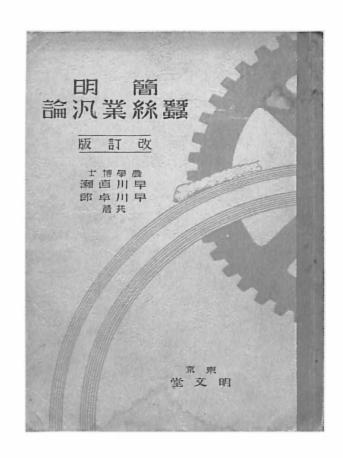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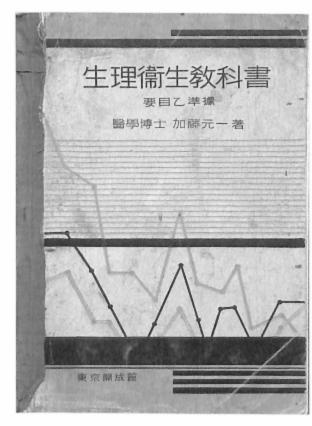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교과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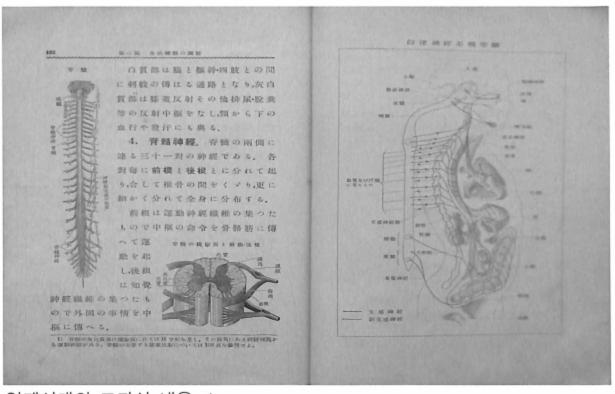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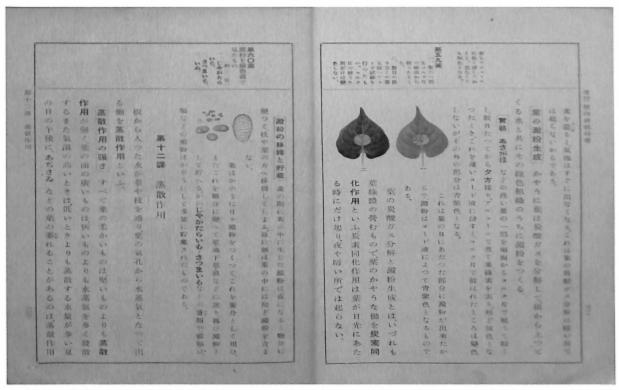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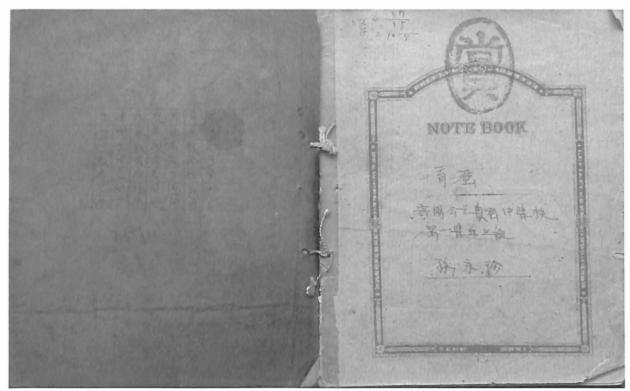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교과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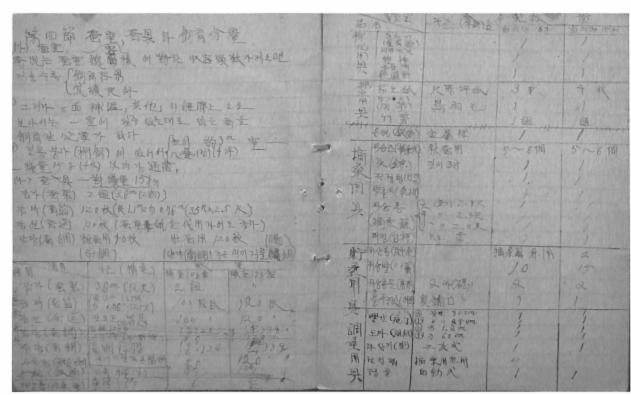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교과서 내용-1



일제시대의 교과서 내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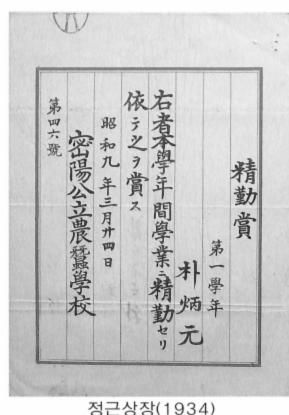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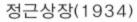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공책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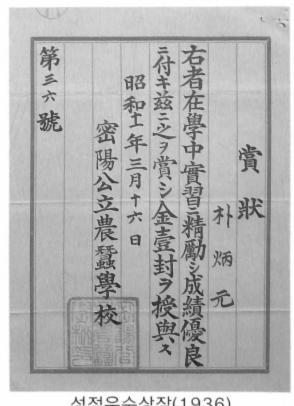


일제시대의 공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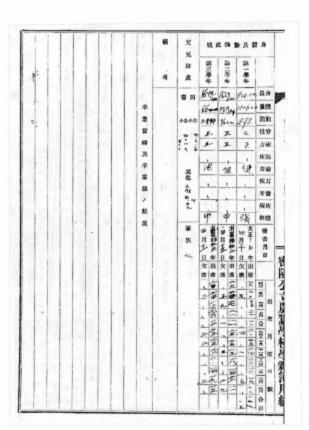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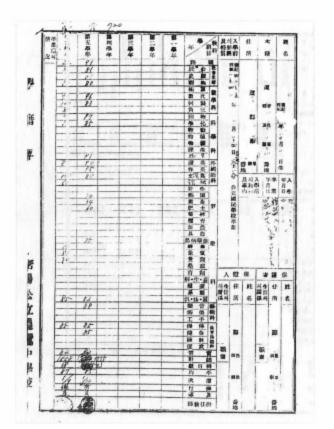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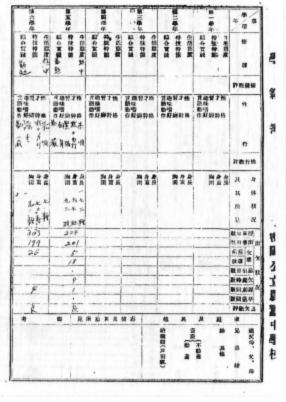
성적우수상장(1936)





밀양공립 농잠학교(1924) 학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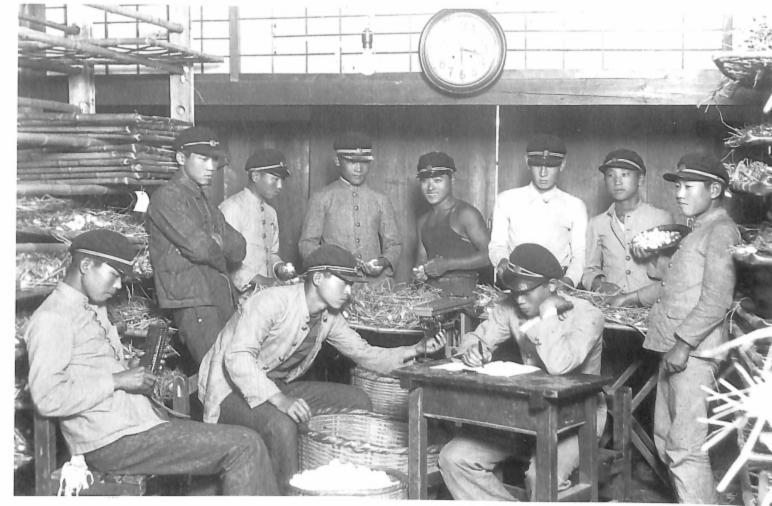




밀양공립 농잠중학교(1946) 학적부



뽕나무 간작 실습(1936)



누에고치 선별작업(1936)



과수농약 살포(1936)



진면제조실습(1936)



채소관리(1936)



감자수확(1936)



과수나무 가지치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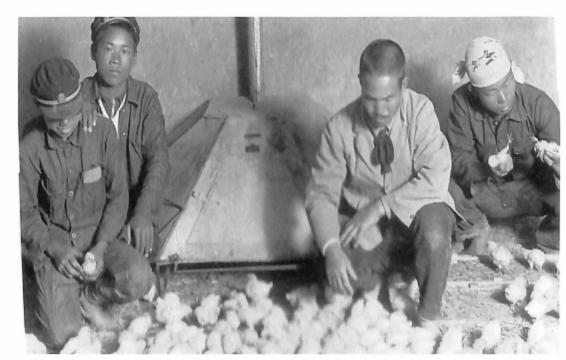
목화솜 수확(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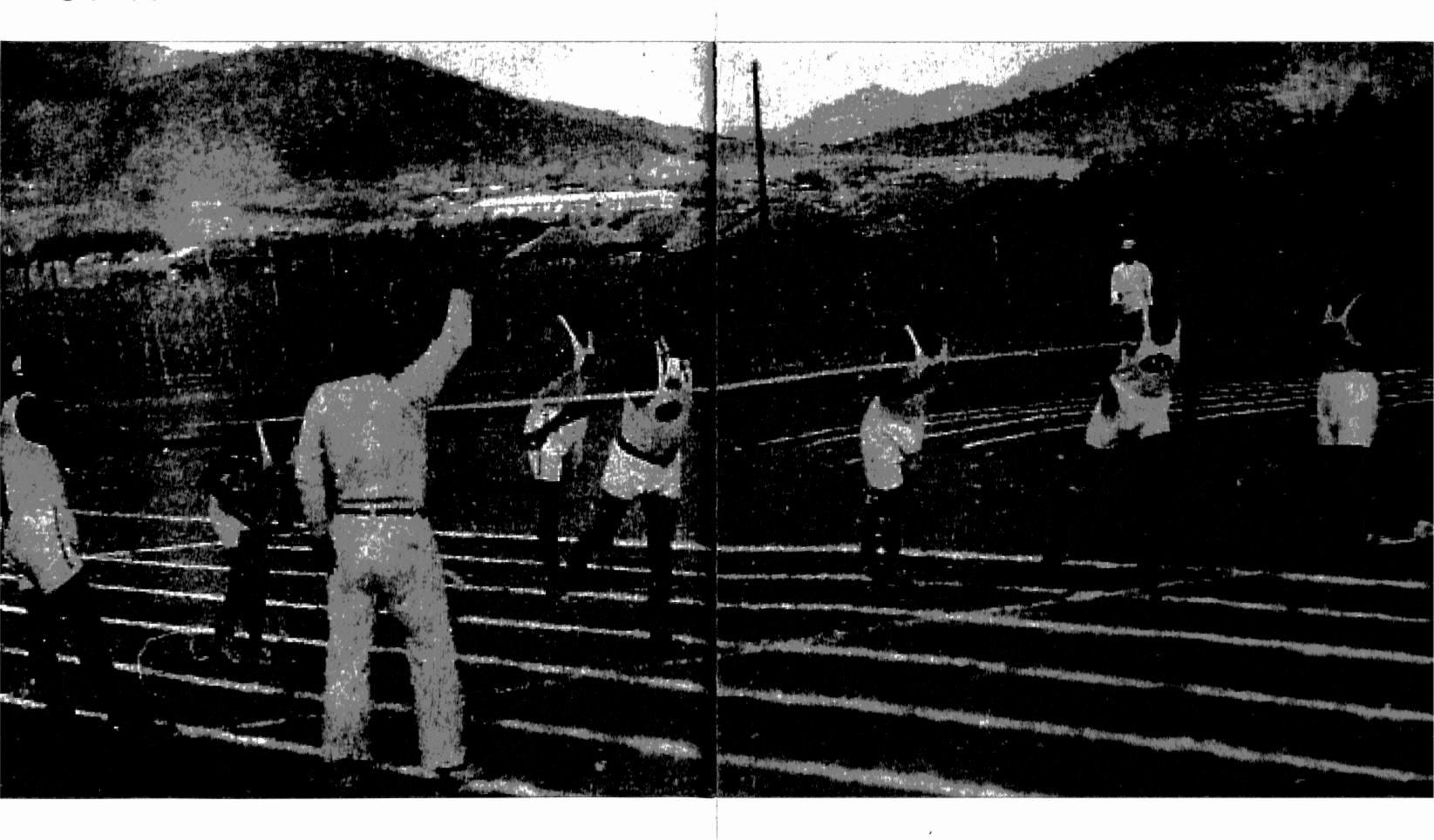
가마니짜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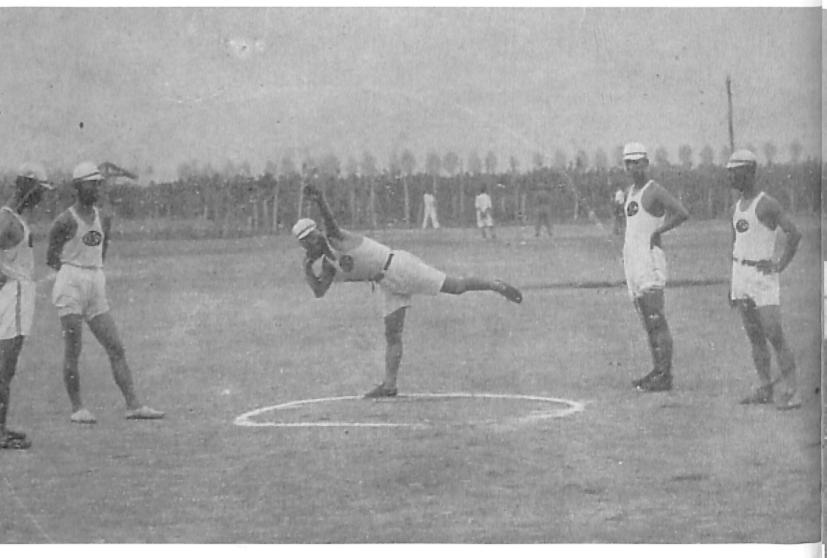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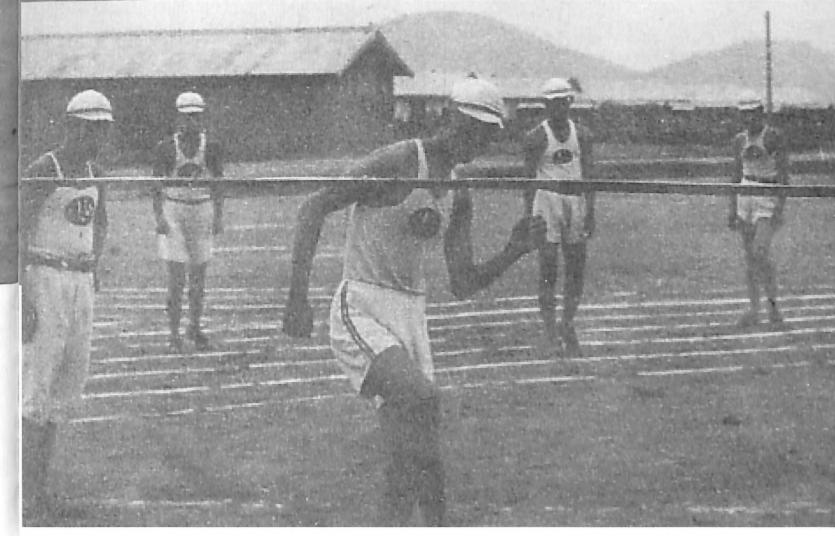
돼지해부 실습(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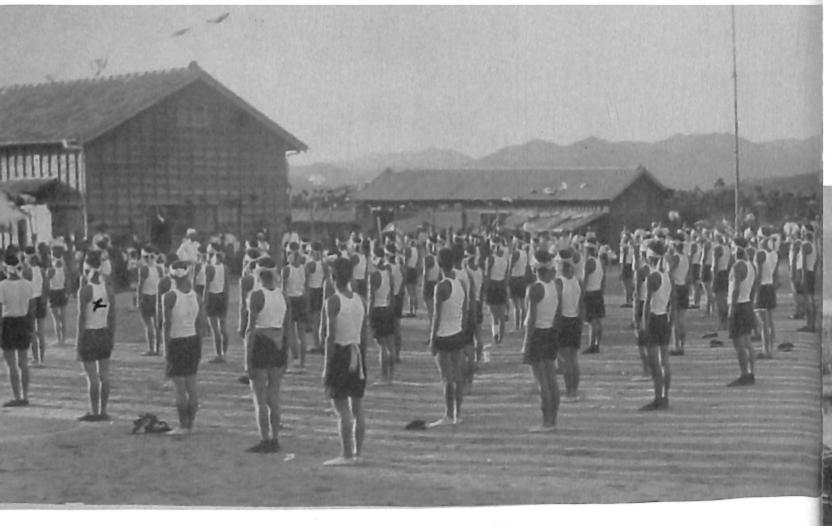


병아리 감별(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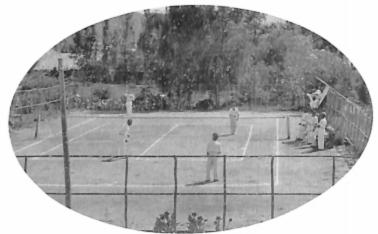












정구부(1940)



복싱부(1941)



탁구부(1940)



유도부(1936)



축구부(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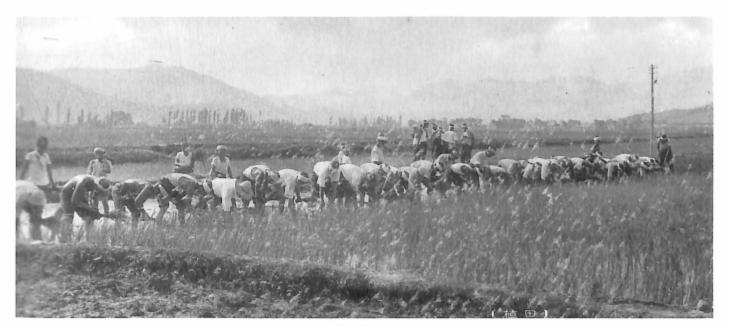
음악부(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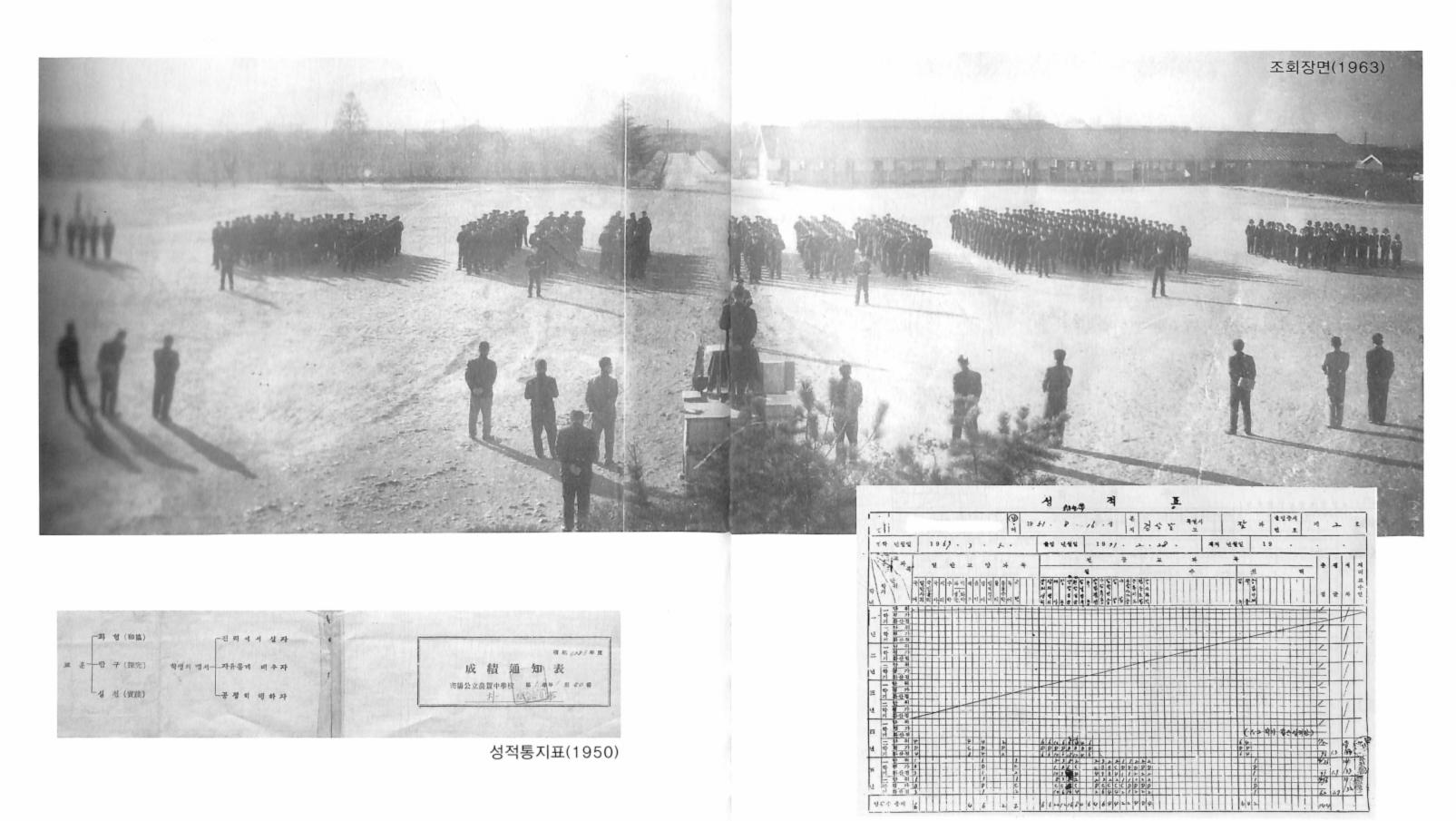
보리베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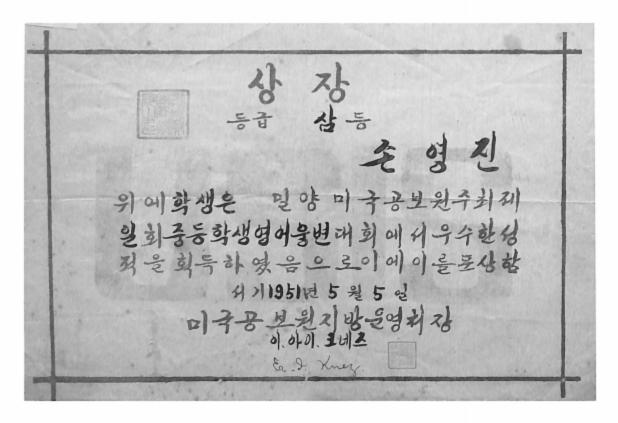
모내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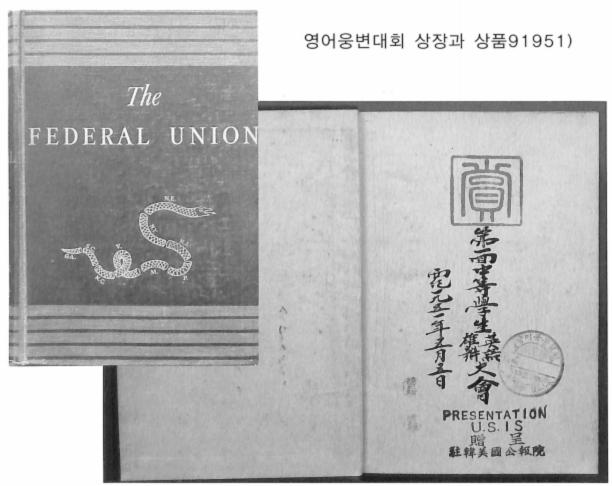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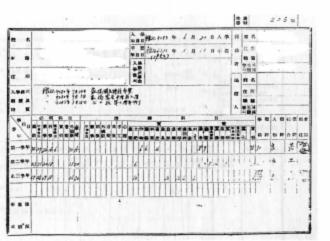
모내기(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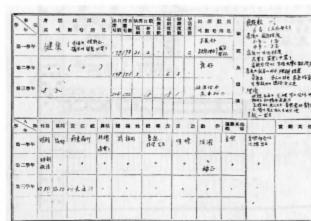


성적표(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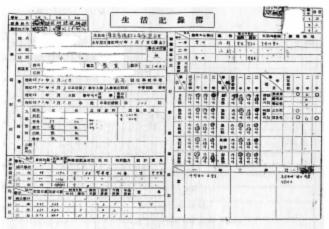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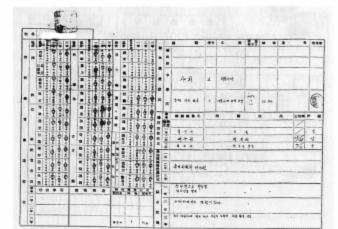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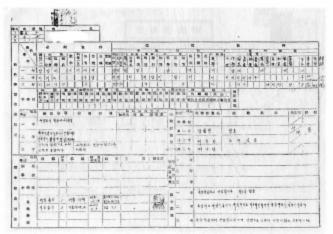


밀양농잠 고등학교 학적부(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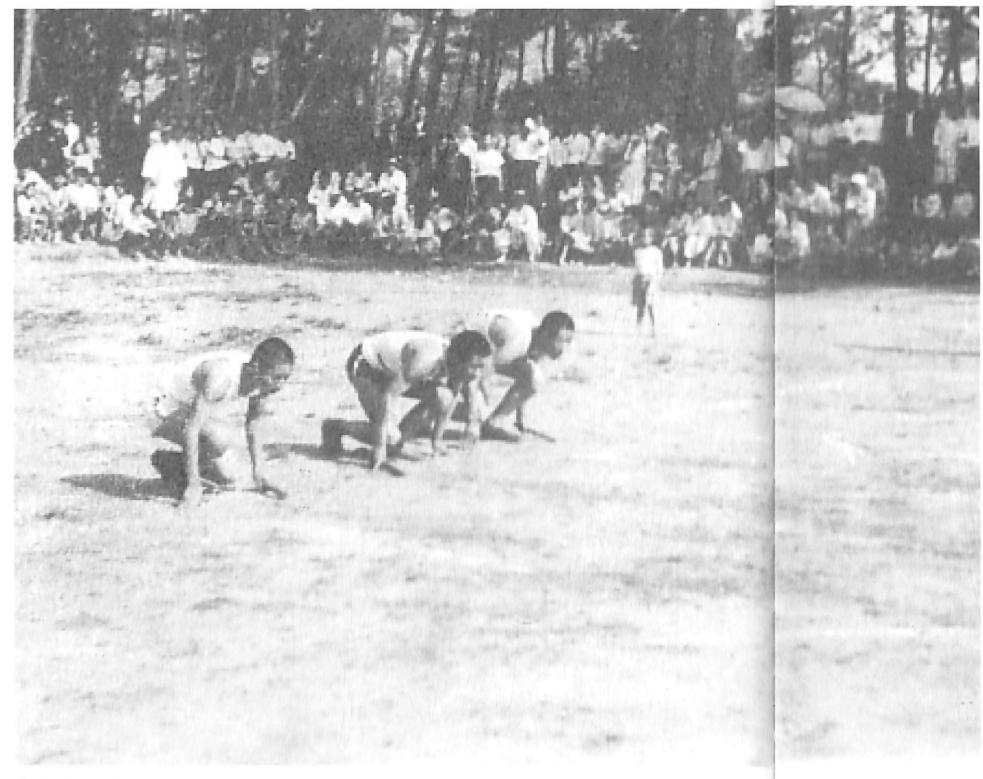


밀양농잠 고등학교 병설중학교 생활기록부(1955)





밀양실업고등학교 생활기록부(1960)



육상부(1963)



배구부(1967)



유도부(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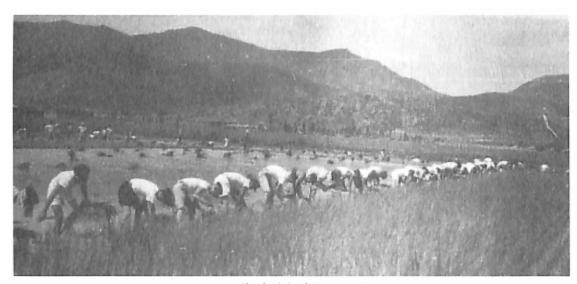
남자육상부(1967)



여자육상부(1967)



기율부(1967)



모내기 봉사(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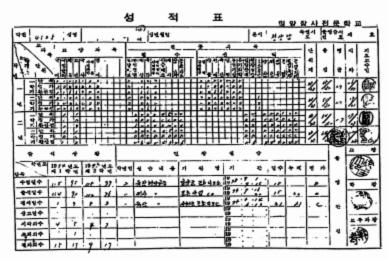
대의원 회의(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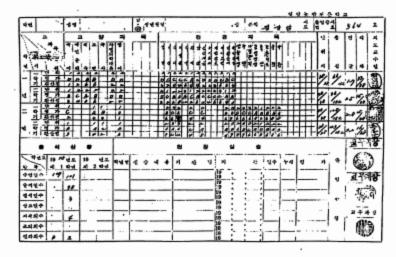
교련 제식훈련 모습(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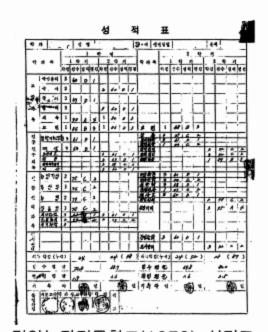
야외학습(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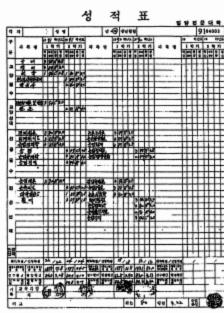
밀양잠사 전문학교(1974)-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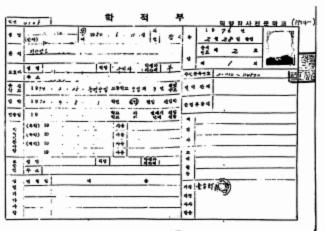
밀양농잠전문학교(1975)-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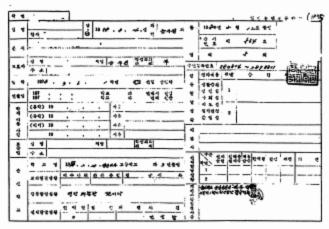
밀양농잠전문학교(1979)-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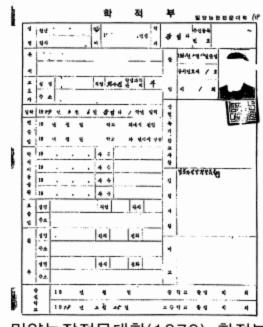
밀양전문대학(1991)-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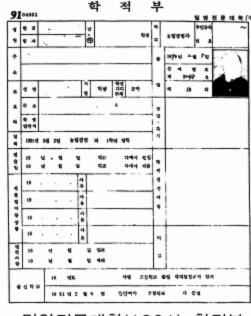
밀양잠사전문학교(1974)-학적부



밀양농잠전문학교(1975)-학적부



밀양농잠전문대학(1979)-학적부



밀양전문대학(1991)-학적부



최첨단 농기계 실습(1973)



농과(1983)



농과(1983)



식품제조과(1983)

전문학교 · 대학시기 │ 1969~1992



원예과(1983)





농가정과(1983)

전문학교 · 대학시기 │ 1969~1992



농업토목과(1983)



농업건축과(1983)

조경과(1983)





농업경영과(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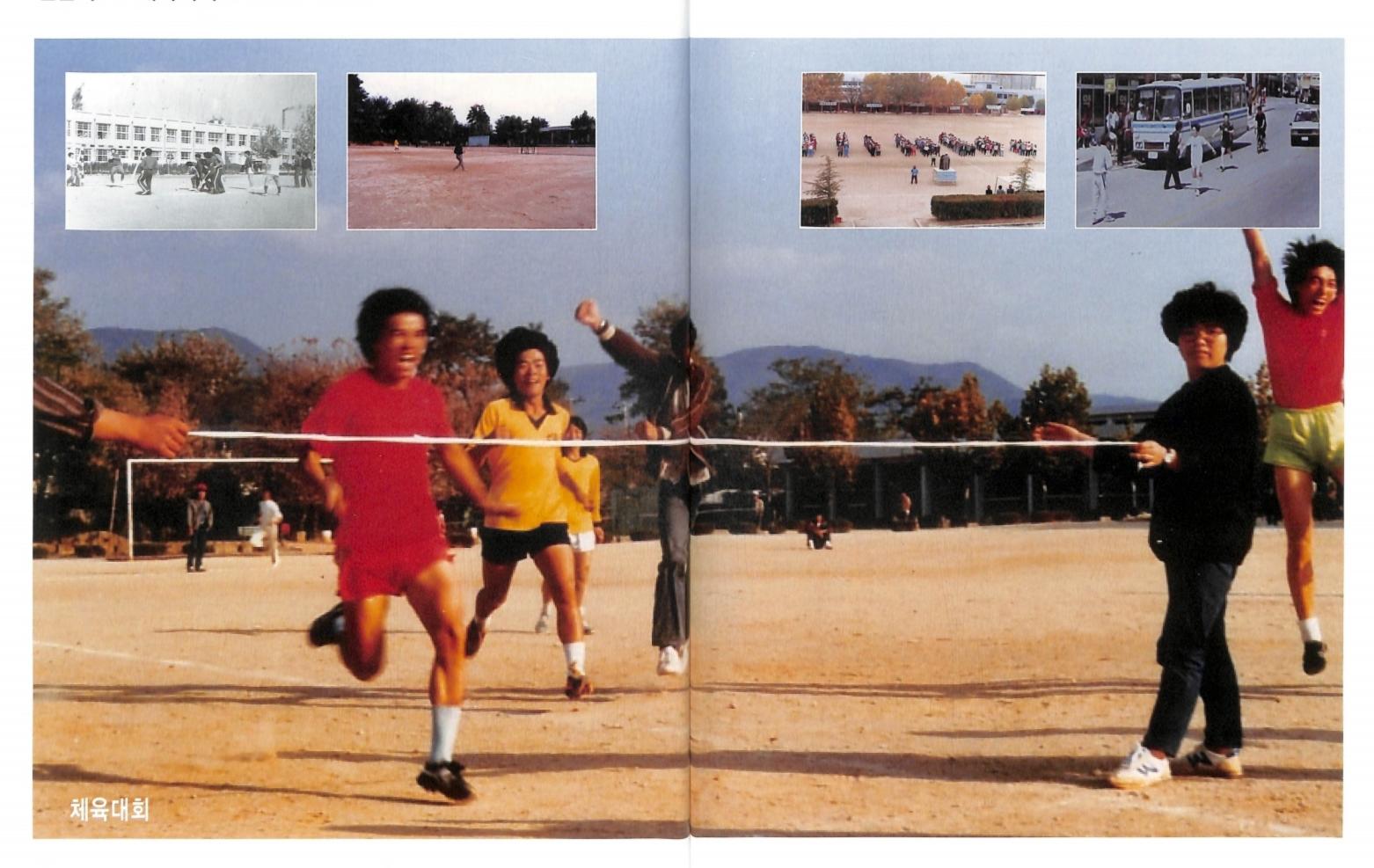


잠업과(1984)



농업경영과(1984)

전문학교·대학시기 | 1969~1992



100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01







102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03

전문학교 · 대학시기 │ 1969~1992









104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05**

4년제 대학시기 | 1993~2006



동아리 연합 출범식(199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003)



총학생회 출범식(1999)

4년제 대학시기 | 1993~2006







4년제 대학시기 | 1993~2006

대학문화의달 선포식(2002)





대학문화의달 선포식(2003)



사명대사 발표회(1999)



패션쇼(2000)



추억의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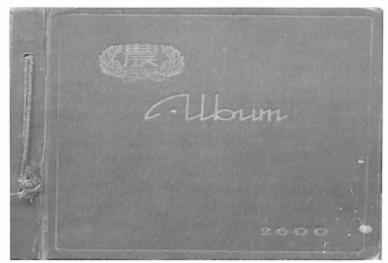
• 졸업사진 • 밀양의 옛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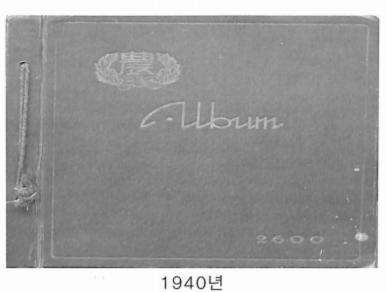


졸업장(1951)

졸업앨범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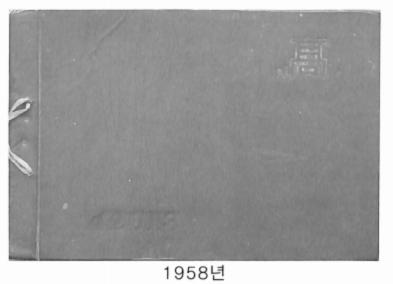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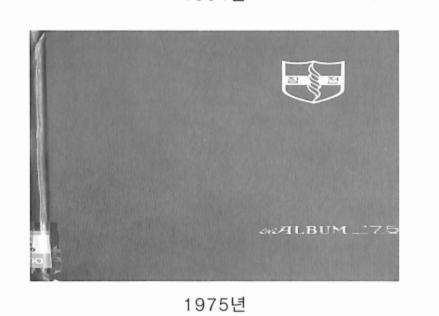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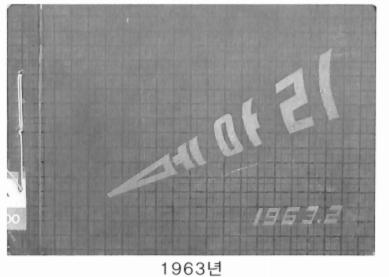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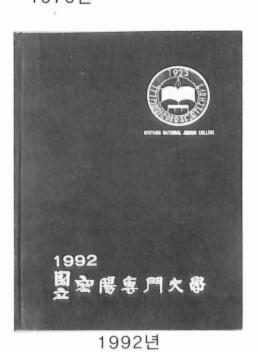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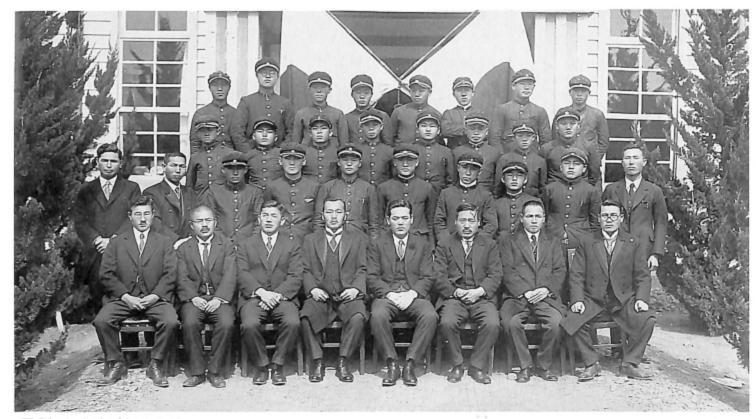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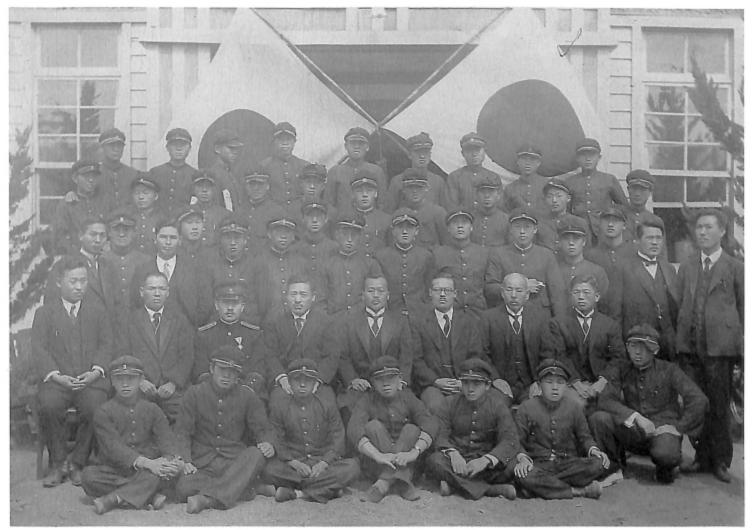
졸업사진



졸업기념사진(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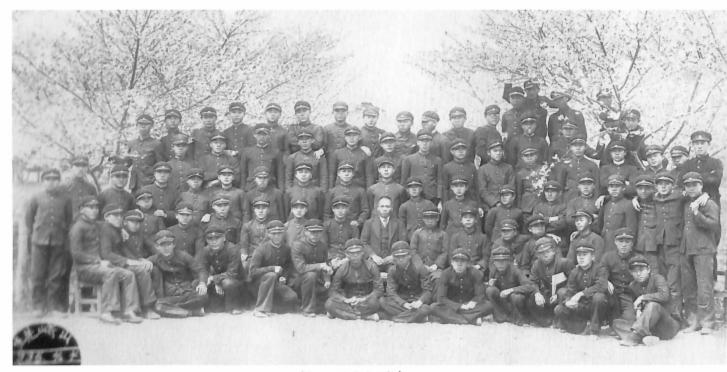


졸업기념사진(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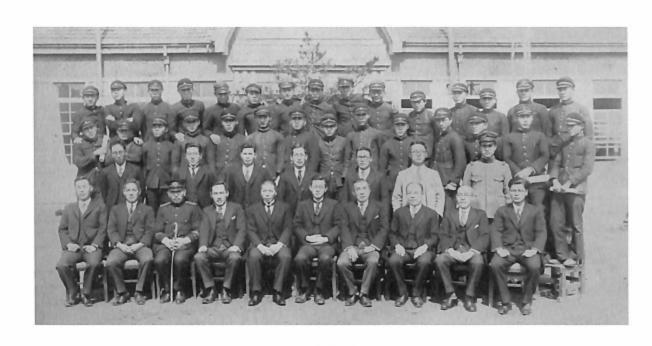
졸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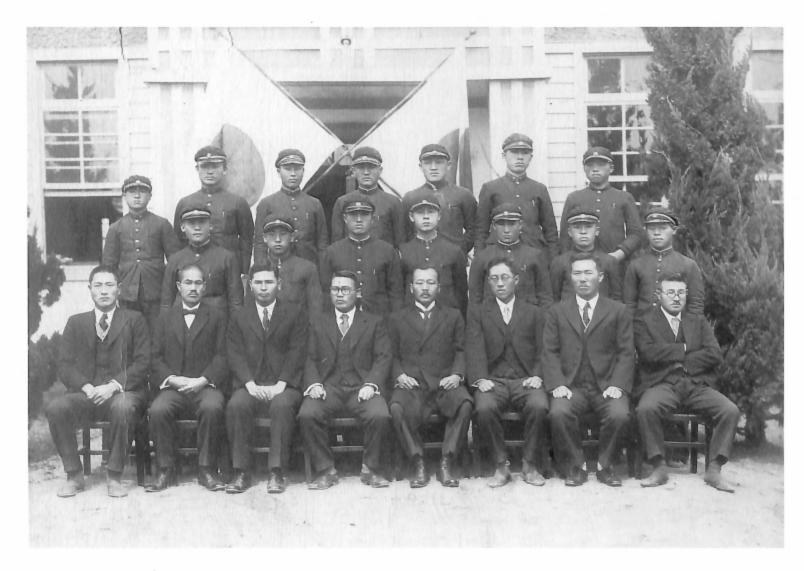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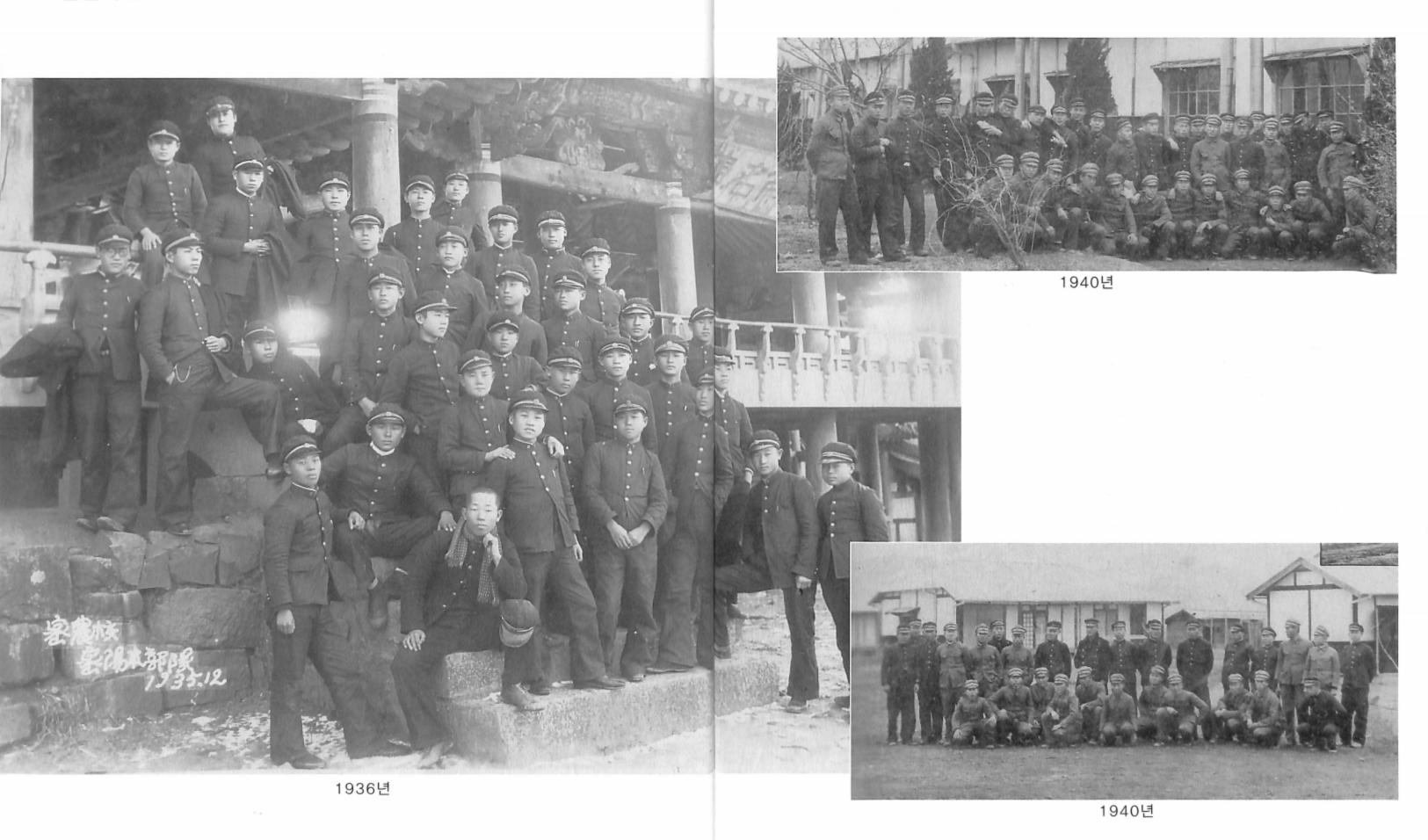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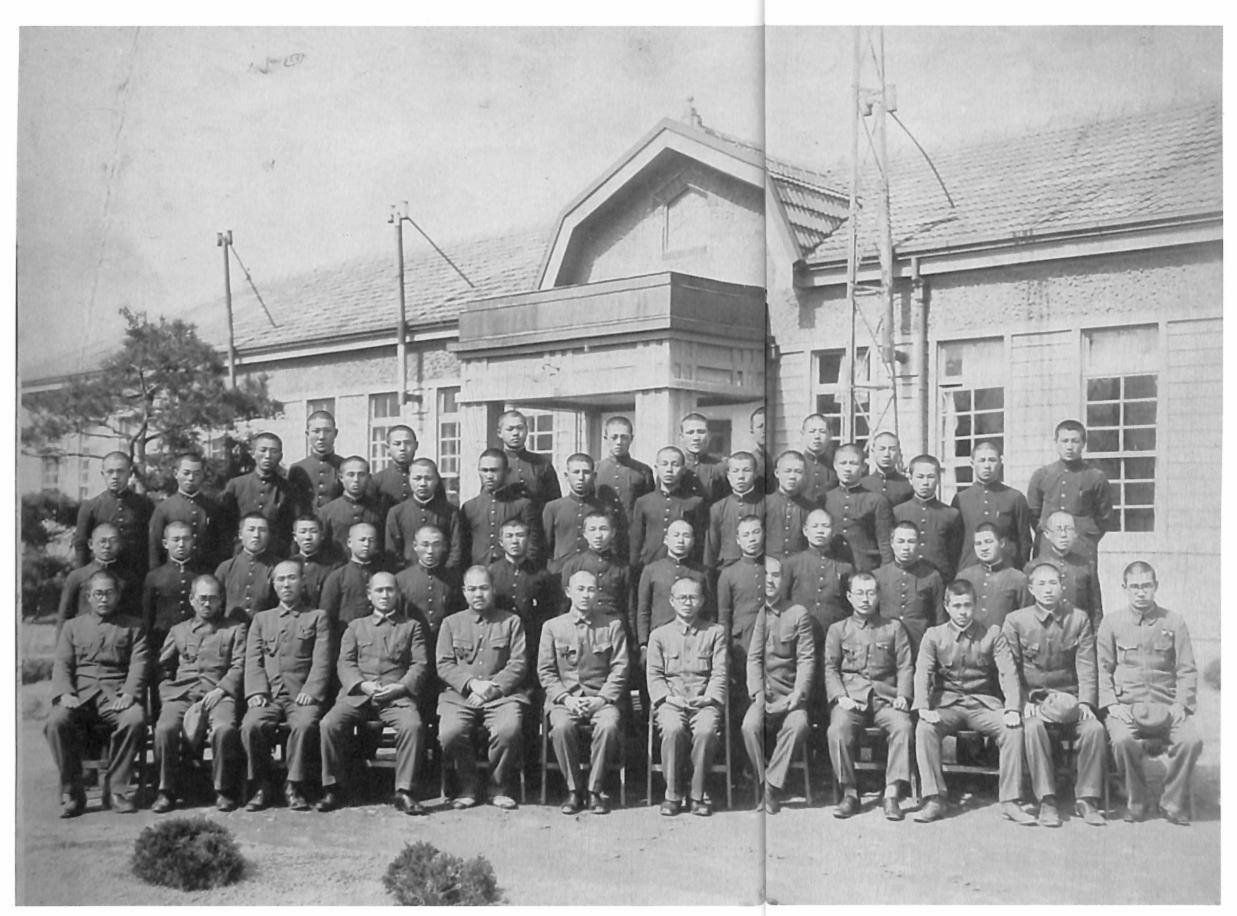
1935년



1936년









1946년



축산과(1961)



잠업과(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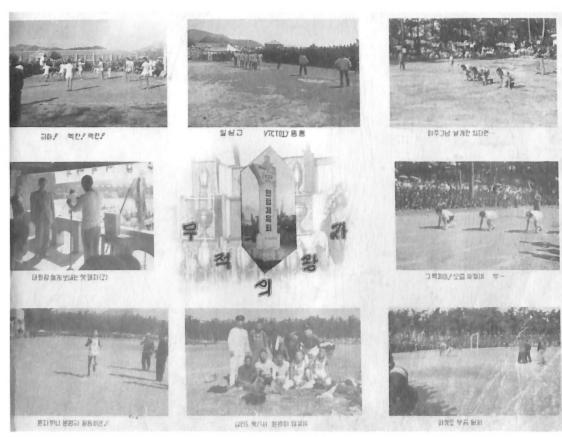
상업과(1961)

1940년

줄업사진



교사사진(1961)



체육대회(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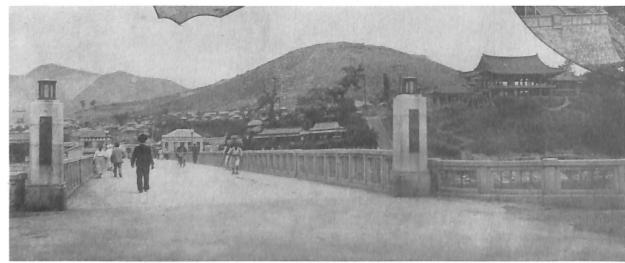


수학여행-경복궁 경회루에서(1963)





1910년대 시가지 향교 주변



1930년대 밀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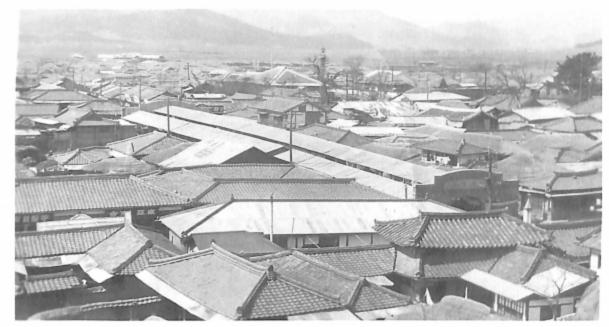


1910년대 영남루



1930년대 역전

128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29



1930년대 밀양성내



1930년대 뱃다리



1930년대 영남루



1930년대 표충사



1940년대 밀양강



1965년 하남읍 수해 현장



1965년 밀양강



1972년 공동방제(임천)





1974년 퇴비증산 산풀베기



1974년 가마니짜기 대회



1975년 보리밝기(가곡동)



1975 밀양 아랑제



1975년 추곡수매



1976년 밀양교와 삼륜자동차



1976년 펌프와 우물



1976년 밀양아랑제



1976년 모내기 일손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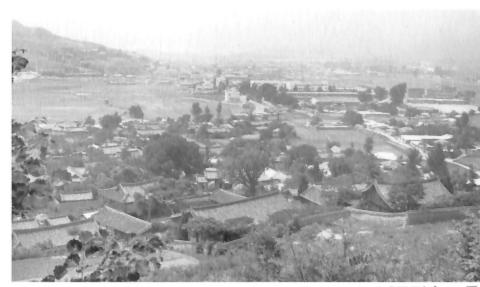
1977년 퇴비증산 왕겨수집



1976년 하남읍 수산리



내일동 우체국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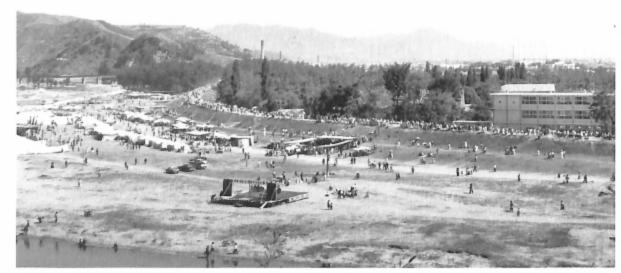


1977년 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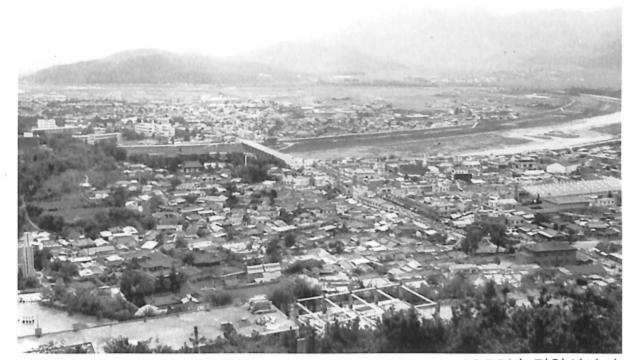
밀양의 옛모습



1977년 북성사거리



1978년 밀양아랑제



1979년 밀양시가지



성장과 도약의 시대 4

•캠퍼스 이전 • 국제화 · 세계화 • 대외교류

캠퍼스 이전



이전사업 기공식(1998)



이전기념 비마상 제막식(2005)



이전기념 식수(2005)



이전 기념식(2005)

사진으로 본 82년사 | **145**

캠퍼스 이전



이전기념 리셉션(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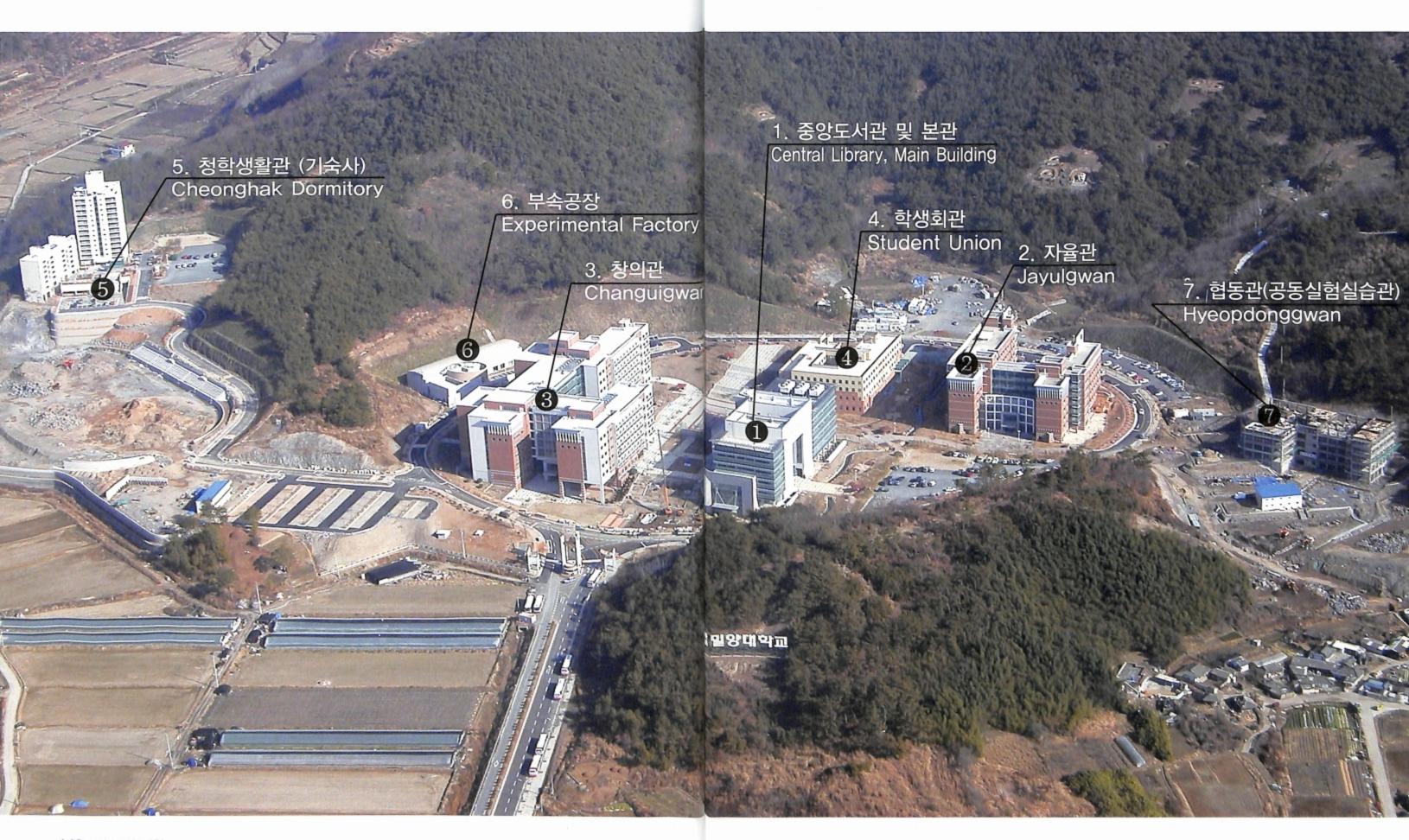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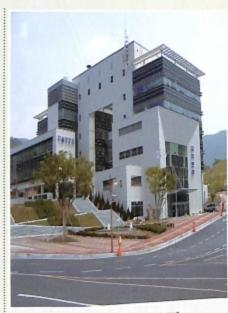
이전기념식 후 시설관람(2005)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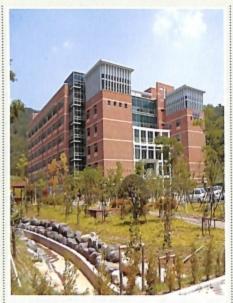
146 | 아! 밀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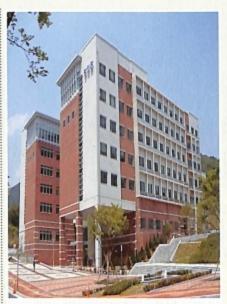
1. 중앙도서관 및 본관 Central Library, Main Building

행정부서, 인터넷 프라자, 자료 실, 전자열람실, 전자계산소, 강당, 전시실, 종합민원실,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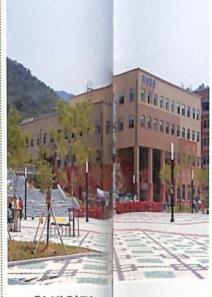
2. 자율관 Jayulgwan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 원학과, 바이오정보과학과, 생명 공학과, 산업경제학과, 행정학과, 회계정보학과, 교양과정부, 세미 나실, 멀티미디어실, 어학실습실, 강의실, 생명자원과학대학장실



3. 창의관 Changuigwan

식품과학과, 환경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응용고분자공학과, 기계 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조 경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애니메 이션학과, 레져스포츠학과, 자울 전공학부, 공동실험실, 멀티미디 어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사회문 화대학장실, 이공대학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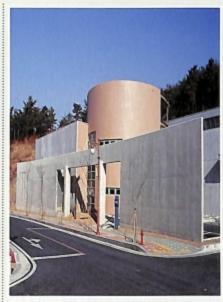
4. 학생회관 Student Unic

식당, 매점, 총하회, 동아리, 신문방송국, 보건 문소, 은행, 당구장, 오락실, 스트푸드점, 문구점, 서점, 만화, 복사점, 미용실,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휴게실



5. 청학생활관 (기숙사) Cheonghak Dormitory

비마관(남자), 매화관(여자), 식당, 매점, 세탁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6. 부속공장 Experimental Factory

기계공학과 관련 실험실습실



7. 협동관(공동실험실습관) Hyeopdonggwan

동적재료실습실, 공동기기분석실, CATIA실, RAMAN실, XRD 실, SEM/EDX실, 화학실습실, CAD/CAM실, 산학공동연구실, GIS및응용디지털디자인실

국제화·세계화



호주 커틴대학과 교류협정체결(1999)



중국 길림농업대학 부총장 본교방문(1999)

中国古林农业大学韩国国父祖附近大学学术交流及友好协作协议书签字仪



중국 길림농업대학과 교류협정체결(1998)



중국농업과학원 특산연구소와 자매결연 협정체결(2002)



미국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베이커스필드)과 교류협정 체결(2003)



일본 자매대학 방문단 출범식(2003)

일본 오이타대학 방문출범식(2005)





일본 오이타대학 방문을 위한 설명회(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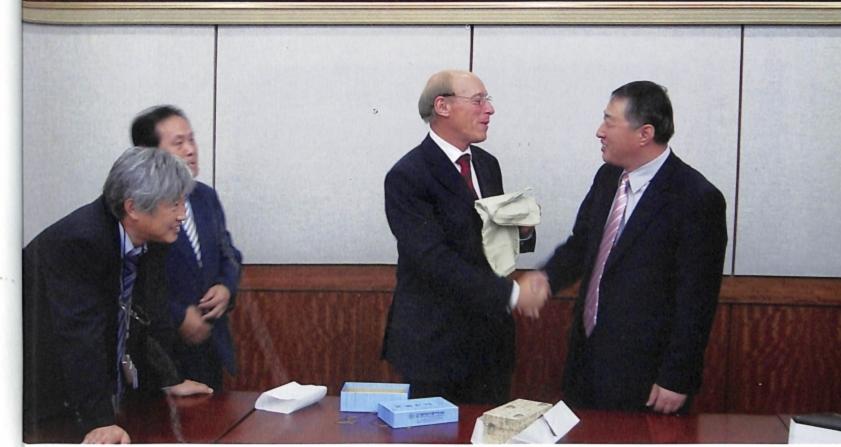
일본 오이타대학 본교방문(2005)

국제화·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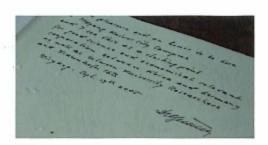


러시아 IRKUTSK주립대학 본교방문(2005)

2005, 9.13 Miryang National University



독일 IGB연구소 본교방문(2005)



러시아 IRKUTSK 주립대학 본교 방문단 방명록(2005)



김태호 경남도지사 독일 IGB연구소 본교 방문단 대표 집견(2005)

국제화 · 세계화



아르헨티나 라플라타대학과 교류협정 체결(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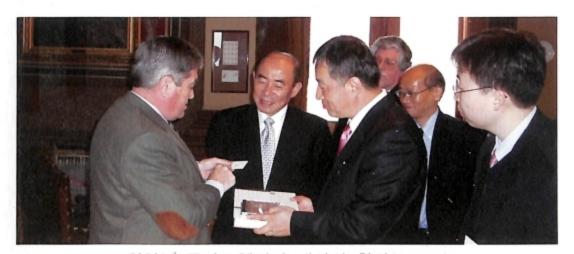
라플라타대학과 교류협정 체결후 기념촬영(2005)



라플라타대학 농과대학교수들과 면담(2005)



라플라타대학 실습농장 견학(2005)



최양부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환담(2005)



아르헨티나 전문가 초청 특강(2005)

158 | 아! 밀양대학교



심양농업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후 기념사진(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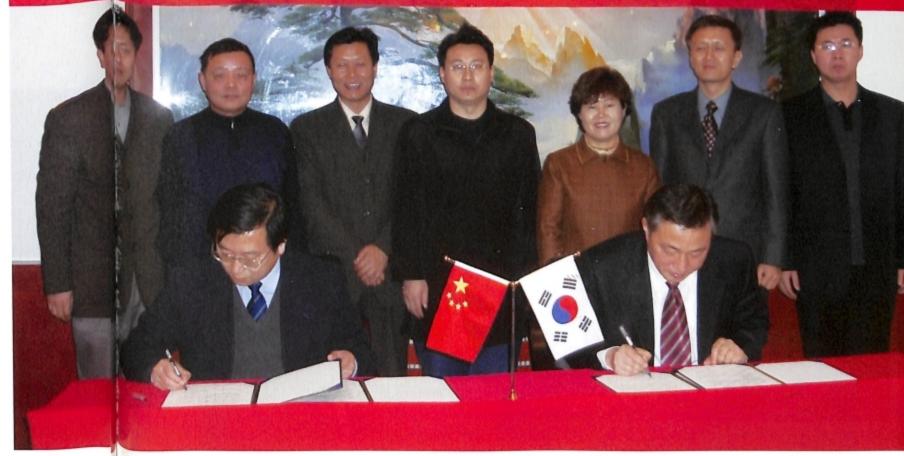


심양농업대학교 세미나 발표후 기념사진(2005)



심양농업대학교 교수본교 방문(2005)

业大学-密阳大学校际合作协议



중국 심양농업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2005)

160 | 아 / 밀양대학교











162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63

대외교류













164 | 아! 밀양대학교 사진으로 본 82년사 | 165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다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신문기사를 통해 본 통합과정

5



취임식에서 부산대와의 통합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상학 총장

제4대 이상학 총장 취임사(2005.3.31)

8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밀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교직원, 학부모님, 동창 여러분, 지역 사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학교는 1924년 밀양공립농잠학교로 개교한 이래 수많은 학제변경을 거쳐 1993년 4년제 고등교육기관인 산업대학교로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80년간 정들었던 내이동 캠퍼스를 떠나 이제 여기 청학리에 맑고 아름다운 새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밀양대학교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제 세계의 최고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내부혁신도 수없이 추진하였고, 울산 진출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자 구노력의 마지막 카드가 통합이었고, 다행히 명문 부산대학교와의 통합논 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양대학교 총장 취임의 첫마디가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통합 상대가 명문 부산대학교여서 다행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80여년의 우리 역사와 전통은 명문 부산대학교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밀양대학교 마지막 총장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임기는 11개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저 혼자의 아픔으로 밀양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아픔이 줄어들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요 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족입니다만, 11개월의 임기는 통합작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합 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에 걸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밀양대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기간 내 졸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창회도 양교 동창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밀양대학교의 마지막 총장이지만 마지막으로서가 아니라 성공한 총 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충고와 지도편달은 달 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 빕니다.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합의각서 조인식(2005. 3. 31)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부산대학교 총장과 보직교수 본교 방문(2005)



부산대학교 교직원 본교 방문(2005)



부산대학교 방문단의 본교시설 관람(2005)



부산대학교 방문단 기념촬영(2005)



통합 추진을 위한 양교 대표단의 실무회의(2005)

부산대학교와의 통합



부산대학교 김인세총장 초청 특강(2005. 4. 21)



통합계획서 평가를 위한 대학혁신 자문팀 본교 방문(2005, 7, 25)

신문기사를 통해 본 통합과정





이기주의 넘은 부산-밀양대 통합 집기현기자 ant735@munhwa.com 무산대와 집안대가 사실상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 트디어 올 것이 온 셈이다. 이 비 4~5년전부터 국내 대학 전체 선업생보다 대입 수현생의 숫자가 적어 대학들이 업정난 위기에 처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투체 왔다. 그러나 각 대학의 이기주의 등으로 현실적으로 큰 이라움을 겪어 왔던게 사실 그러나 부산대의 멸양대의 대학간 통합으로 이제 다른 대학들도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당장 부산대, 부경 대, 부산교대, 한국배양대등 부산지역 국립대의 통합 논의가 본제도에 오름 것으로 권망된다. 권국의 다른 대학 들에도 파급효과가 잘 젖으로 보인다.

부산대와 집량대의 등활도 지난해 7월 집양대가 먼제 제의했지만 부산대는 관반양은이 엇같리 우여곡점이 끊았 다. 그러나 부산대는 통합과 구조조정을 통한 생광대 강화를 위해 대스코포스럽자가 구성해 세부 통합방안을 도

28, 29일 교수무료에서 관상품이 예상하고 응효무표의 85,4또나 내 쉽게 통하됐다. 부산대 송동문피도 동합안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기에는 이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인격자원부가 주도하는 시즌 대학 구조조절의 현과에 등통적으로 대기회에 살아난을 수 있다는 주장도 불급대를 얻었다. 독립 양주의 복 학과나 학부를 통합할 수 있어 압약정원이 간속되면서도 경쟁의을 더 것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양 대학은 5월 교육부의 통합승인을 받은 뒤 2006년 3월부터 통합대학의 신입생을 선만할 계획이다. 통합안에 따라 생명자원과학 분야에 장권을 보유한 말양대에 부산대 나노관한 의과를 이건해 '나노-마이오 텔리'를 조성 하고 부산대와 중복되는 입앙대의 나비지 8~9개 학과 및 학부를 통합하게 된다. 지역이론은 대학이기주의를 넘 화하건 기대한다.

기사 계계 영자 : 2006년 03월 30일

문화일보 | 사회

문화일보 www.munhwa.com

밀양대 '부산대 흡수통합 반대추진위'출범

문데 말만대 총학생회가 29일 오후 1시 흡수 통합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가졌

반대"흔적없는 흡수통합 웬말이냐"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반발했다. 위원회는 특히 "흡수통합 될 경우 학생회관이 로스쿨 세미나실로 변경되고, 모든 자치기구 맟 동아리는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질뿐 아니 라 우리 손으로 일구에낸 모든 청학캠프스를 🛕 일었다 송학생회는 부산대에 내중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글이 130만원 수준이나 부산대

200만원선으로 오르는데다 2005학반의 경우 부산대 졸업점을 받지 못하고 통합후 부터 부산대 학생의 대우와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용해는 1217명인데 통합이 되면 일양캠프스는 54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당교간 통합을 지면시켜 모든 진상규명이 이뤄진뒤 학생들의 의견수령을 거쳐 통 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과 총학생회장은 "양 대학이 통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흡수 통합은 반 통합추진 당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부산-밀양대, 사실상 통합 확정

부산대 교직원 86.4% 찬성…가속도 붙을 전망

신문기사를 통해 본 통합과정

국제신문

2005/4 04월 01일

부산대-밀양대 통합각서 조인

국립 부산대와 일양대가 31일 통합합의각시 에 조인했다.

양 대학은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동경구 온천동 농심호텔 2층 그랜드볼륨에서 김인 참석한 가운데 통합합의각서 조인식을 가전

양 대학간 통합합의각서 조인 결치가 끝남 에 따라 내년 3월 부산·일양 두 캠퍼스 체제 기유 부산 동제구 온진동 등 용한(원리)과 일양대 이상학 의 '통합 부산대'가 공식 출범하고 캠퍼스벌 의 기유 부산대'가 공식 출범하고 캠퍼스벌 의 기유 부산대'가 공식 출범하고 캠퍼스벌 학사조작과 특화전략이 가시화되는 등 대학 구조계력도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 부산대는 현 일양대의 생명과학·사회문화·이공대학 등 3개 단과대학과 산

국립대 최초의 및망캠퍼스 나노과학기술대학은 3개 학과에 학과별 교수 10명, 학생 40명 규모로 출범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생명응용과학부, 생명자원공학부, 지역개발학부, 농 곱시스템학부 등 4개 학부체제를 갖춘 여정이다.

현 일양대의 3개 단과대학은 몸해 신입생이 출입하는 2009년 2월말까지(건축학부 건축성 계진공은 2010년 2혈일까지), 산업대학원은 2007년 8혈일까지 유지한다. 통합 때 일당대 제학생(산업대학원생 포함)은 일양대의 학칙을 적용받으며, 등학대학의 총장은 앤 부산대

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by kookie.

아시아일보

부산대가 종합에 따른 합 의사 중인성을 갖고 본건 작인 등합 중치에 들어 갔 으니 말았다 중학생회가 흡수통합을 만대하는 시기 지 기무시위를 발이는 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이 중력되고 있다.



부산대 통합, 찬 반 양론 분열 갈등 증폭

흡수통합 반대 시가지 가두시위 · 대규모 집회

등입고점에서 한 대학 최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원에 부산대와 통합에 대한 합의시 포인시를 가지고 당 대학 기회의원을 공동본부장으로 있는 통합부인 단 산업생을 모집했던 것이 되면 나는데 참였고 있다.

함께 막대한 손님을 좀 됐어라고 주었다고 있다.

SEGYE-com

일력: 2005.04.01 (공) 16:15

[東西南北] 부산·밀양대 '윈·윈 통합'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는 물론 아시아권에서조차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 급한 상황에서 적자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대와 및 양대가 지난달 31일 통합조인식을 가진 것은 일단 대학 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얼로 평가받고 있다.

양 대학은 내년 3월1일 통합과 동시에 교명을 '부산대 학교'로 하고 현 일양대에 나노과학기술대, 생명자원과 학대를 중심으로 한 '나노 바이오 청학밸리'를 조성한다. 전상후 전국부기자 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일양캠퍼스에는 로스쿨 최종심화과정과 어학캠프, 리더십프로그램과정 등이 신 설돼 일부에서 제기하는 흡수통합 주장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대체적으 로 '양 대학 모두 원원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양캠퍼스가 나노 바이오 과학중심 캠퍼스로 육성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

부산대가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는 등 수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나노 바이 오 분야의 독립된 캠퍼스 확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

통합 부산대는 충분한 캠퍼스 공간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동남권 중심대학은 물 론 2015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웅비할 장미빛 청사진도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9개월여 만에 옥동자를 분만한 통합 부산대가 믿그렇대 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려면 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산이 뒷반침돼야 하 고 인재를 키울 노벨상 수상에 준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꾸준히 몰려들어야 한 다. 또한 경쟁력 높은 산·학 협동체제를 탄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세계적인 대 학치고 지역발전과 산업현장을 무시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부산대와 말양대 통합은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대학 간 통폐합 논 의에 더욱 거센 불길을 댕기게 됐다.

sanghu60@segye.com

2005.04.01 (含) 16:15

밀양대 이상학 신임총장 당선 "동등한 입장 부산大와 통합 학생들 불이익 없도록 최선"

유럽지다. 이렇지 함당은 시 난 2월 27일 선거원자 198명 중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6합의 지지를 얻어 해석대 중 장에 단선했다. 이번에 취심한 말장대 아상

대한 기계 기계 전 분당에 이것 한 선명 취임은 취임소감에서 21세기 세계화 대지털 시대에 당당히 맞실 수 있는 언제와 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졸업 후 사회에서 인정받는 언제 당당에 전에무구하겠다고 밝

합성하는은 취임소강에서 고 김조현다. 과 지역인들이 증강도 교수들 2대기 세계화 다지될 시대에 그리고 고두과 연구의 환경 달라 하보실 수 있는 언제양 개선과 분해 때경의 여학 및 성을 교육 목표를 상고 물업 청세계리 분에 해양, 현장 때 너 비 폭양에 따른 날이스런 숙하여 전에바무구하겠다고 밝 현다. 또한 직립대 구조조점에 일 하는 자신의 경양으로 한 생각이 되었다. 보 등은 경영에 있는 화가한 대 또한 직립대 구조조점에 일 하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의일 부산대되의 통향에 대신 크일 부산대되의 통향에 대신 크일 기계 등 수은 등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있는 항교 본위가 조선과 국 하게 된다. /물망·정현호가지

따른 목제 개명화 시대에 목 음함 수 있는 인제 유성 항상 에 교육을 다하기로 했다. 한 권 지난 31일 부산대와의 통

窓陽新聞

국립 밀양대 제4대 총장 이상학 박사 취임

국합발한대학교 제4대 용장에 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봉합 부산 는 대학통합의 길을 걸렸다고 다 당학 박사가 취임하였다.
자난 22일 발양대학교 봉학점의
수 있고 교육중심의 대학에서 연 확인, 이난 행사에는 이상학 중

第4代 總長 序相學 牌士 華田太 지난 22일 답안대학교 용학대의 수 있고 교육중심의 대학에서 연 가장되기 대학은 만든어 지역인되 당의 대학은 인구, 제작 가장되기 대학은 인구를 지역한 한 12을 고입하여 보고 있다. (20년2년~) 대학 전 전공호, 일수 반도하여 대학을 만든어 지역인되 보고 지수 기원, 학생, 고수, 지원, 학생, 고수의 지원, 학생, 고수, 지역인의 의 자기 위에 대학구상원 및 학생, 학생, 고수, 지역인의 의 자기 위에 대학구상원 및 자기 위에 대학구상 (0)

밀 양 신 문 제305호

2005년 4월 13일(수요일)

密陽大-釜山大

통합 어떻게 되어가나?







◈문제점과 기대 효과

여기에 추진 중인 수의과 대학이나 한 의과 대학이 유치되었을 때 기존의 딸양

선언는, 너무 동병이 힘당 집에는데 보 집 인물은 불합 전보다 회에 중되어 가능 하며, 학박사 과정의 신설, 연간 50억분 이나의 교가 연구 기자리의 환흥, 불합 부산대의 지방도와 이미지 상송으로 오 참려 지역됐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앞으로 어떻게 전용하을 갖춰 나가야 하는가가 상공의

기자: 필당대 총장 취임을 취하드립니다. 취임하시는 날 한편되는 내는 경험 기존계획은 매우 타당성이 있으며 성공 바로 부산대하여 통합 합의과서에 서행하셨는데, 그렇게 사무료실 이유는 무양입니까? 총장 존집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며, 엄청에 대한 진행들을 본입니다. 제상 기존 기존에 대한 지원에 보고 나는 것은 점합기면계획이 환경 보인니다. 기자 중합된 대학의 교명을 새로 해야 하므로 지체할 시 보게 나는 것은 점합기면계획이 관하지 전투에 환경되었다. 기자 중합된 대학의 교명을 새로 해야 하므로 지체할 시 보이 있는데, 이에 대한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가는 경험 나는, 아에 대한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5년 5월 6일 금요일

순탄하지 않은 밀양대 -부산대 등합

무엇이 문제인가

밀양대 동문회 "왜 우리만 감축하나"

밀양대총동창회 임수복회장 취임

"모교 부산대와 통합 동창회 위축 않도록 최선"

24일 정기총회 임원개선



1 4191911 밀양대 총동창회 봉흡·하운도 고 고, 이상하 총장,

동문 등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새 회장에 임수

복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시키는 한편 새 임원은 개선했다. 정학 새 캠퍼스 이전 후 처음 개최한 이

날 정기총회는 모교가 부산대와의 통합에 따른 어수선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탓인지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날 행사는 임수화 회장 인사, 이상화 성 사무국장의 예·결산보고, 임원개선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의 이슈를 비켜가 무이시 지 않았다. 봉문들은 부산대와의 통합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분위기. 그러나 통합과 관련, 후배들과 지역사회 의 분위기를 통창회에서 비중있게 받아들 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특히 총통참 회가 무산대 총통창회와 통합을 놓고 비중

결론은 부산대와 통합되더라도 밀양함의 스 동창회는 그대로 존속시키자는데 일단 의권의 일치를 보고 폐화됐다.

임수복 회장은 '통합 분위기로 여러가지 로 힘든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되어 실로 책 의 통합에 있어 동창회의 의견이 많이 반 영퇴도록 적극 노력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인된 새 인원은 다음과 간

컴퓨터과 건축과 등 농과대학 편입도 안맞아 밀양대 해명서 "이공계, 부산대 편입이 원칙"

은 설문 자여사들이 경제들면에 참가는 이번 통합의 취용한다. 제 원위나다. 이 전체을 보기하고 이전되는 구에 나는 이 전체을 보기하고 하는 기계를 가는 기계를 가는

부산대-밀양대 통합, "확실히 달라진다"

이날 행사는 임수복 회장 인사, 이상학 재현 필입에학교 이상학 총장이 지난 10일 필양시의회를 방문해 필양 시 총장 축사, 조필공 감사의 감사보고, 이길 김명의 민대책위 입장에 대한 해명과 통합의 필요성에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밀양대 이상학 총장이 10일 시의회를 방문해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시 민대책위원회가 편향된 입장 응 대변하면서 전단지를 배 포하고 흡수통합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뜻 이 애형심의 발로라는 점에 서 이해는 가지만 잘못된 사 실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정이 우려가 된다"며 대학의 고설명했다. 입장을 밝혔다.(본보 31호 4

이 총장은 또 '일양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 사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고 전제한 뒤 "현 시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밀양대학의 앞날을 예측 할

미 등원회와 기원회의 등의도 구 하면 780명 수준으로 참여야 한 배 통합 습인에 필요한 기본조건 다. 을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추진 그라고 최근 5년 간 밀양대의

전 응용 반영한 측정을 어두가게 됩니다면, 등교를 입화가하면 보 역산업과 연계된 폭성화에 기에 입과 지여주만의 계속표육을 위 한 경우에만 지원 한다는 봉가 한 경상교육원 개설 등은 더 나는 기준에 따라 발양대학은 생명자 원과학대학과 나노과학기술대학 으로 폭성화하고 집합중심대학에 나 대고주의 만환으로 전략되다. 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다

■ 대책위 입장에 대한 해명

▶입학정원의 대폭적 축소에

현재 밀양대의 입학정원은 지등급 30%이상 투입에 관해 곧 가시작인 생과가 나올 것이 1.048명(야간 재외)인데 교육부 등합이후 캠프스 명칭은 밀양점 여 밀양지역경제의 활성화하는 1.048범이간 제외인데 교육무 중합이가 함을 고장은 표함 되기가 될 것이다. 의 파립 산업대 자체 구조조정 개 프스로 사용할 것임을 이미 밝힌 제기가 될 것이다. 적인 93%의 참성을 이끌어 됐으 및에 따라 모집합원을 25% 김축 바 있으며 이 캠프스를 세계적인 이러한 결과는 말양대라고 역단 대 등장회와 가성회의 등의도 구 하면 780만 수준으로 달어야 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자원 으로는 이루어대기 힘든 부분으

이 총장, '지역 위해 반드시 통합' 나노-바이오 특화만이 살길 주장

통합 추진 경과

- 경남 및 부산권 국립대학교와 통합의향 논의
- 부산대학교만 긍정적인 답변(2004년 6월)
- · 부산대학교에 봉합의항서 전달(2004년 8월)
- 통합에 대하여 등장희, 기성회 등에 동의를 얻음
- •교수회 및 직장협의회에서 통합 찬성(2005년 3월) · 통합 합의 각서 서명(2005년 3월 31일)
- · 통합 부산대학교 출범 예정(2006년 3월 1일)

실제 등복용이 70% 수준으로 려 👚 통합의 필요성

강하고 있어 이름 감안하면 550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합 후 2000년 이후 신입성 등록들이 모집인원을 540명으로 하는 것은 점차 감소해 2004년에는 전국 하 국립대학 봉 · 폐합 등 구조저희 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립대학 등 · 폐합 등 구조개혁 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권에 해당되는 가운데 부산, 마 안 가운데 '대학의 특성, 지역이 도 일반대학원 석/바사과정, 산 산, 창원 등 도시권 학생들의 유 건 등을 반영한 특성화 여부와 지 입대학원, 모스를 실화과정의 도 입감소로 미달사대가 심화되고

관해 한계에 도달했다. 통합의 근본 목적은 '대학의 경 또 지난 2004년 발표된 대학 구

▶ 통합캠프스 영칭과 정부

이와 함께 이 총장은 "대학이 정력 강화와 특성화이다. 이런 목 조계화안과 2007년까지의 감축 통합되면 화실히 달라진다"고 맺 적에 따라 밀양캠프스는 나노~ 계획 등으로 통합이 불가피 하다.

산업기술대학 설치 요구는 일양 **■ 내이동 캠프스 활용방안** 캠프스 특성화 방향에 크게 위배

되며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내이용 캠프스에 세계적인 식품 관변 원단연구소를 유치하기 위 해 밀양시와 관련 기관에서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급의 40%이상을 투입할 예정이 로 불합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夢南日報

경 남 일 보

"밀양-부산대 통합추진 다소 불합리한 면 있다"

대학교간 통합과 관련, 통합추진 상 자원과학대학과 나노과학대학 2개 환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대 단과대학 설치안을 이공제열 산업기 정부 전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냈 술대학을 포함한 3개 단과대학으로

회 임시회에서 박영태 의원 등 4인 전도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광생교 의 의원이 발의한 필양대하교와 부 육원을 활성회에 만하의 교육기회를 산대학교간의 등합이 교육정책의 효 제공해이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한경쟁력 제고 등 통한취 지에 동의하나 통합 추진상황이 다

밀양시의회 대정부 건의서 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밀양시의회가 말양대학교와 부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학제일 생명 증성, 9) 대학교의 통합점의 조정기

inkyr@gnorws.co.kr

밀양대-부산대 통합에 대한 밀양시민 요구사항

밀양시와 밀양대학교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관련성을 고려 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하고 관철하고자 한다. 또한, 두 학교 당국의 최종합의서에 이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1. 현재 통합안에 규정한 2개 단과대 설치안을 백지화하고 최소 3개 단 과 대학으로 증설, 운영하도록 할 것.
 - * 2개 단과대학 안(기존 통합안): 농학계열 생명자원과학대학(입학정원 420명) 나노과학대학(입학정원 120명)
 - * 3개 단과대학 안(밀양시민 요구안):
 - 농학계열 생명자원과학대학(수의학과 포함) 이공계열 산업기술대학(컴퓨터, 환경, 기계, 토목, 건축과 등 포함) 나노과학대학
- 2. 통합안의 입학정원 총 540명을 교육부의 산업대- 일반국립대 통합 시 산업대 구조조정 25%기준을 준수하여 약 900명으로 증원할 것
- (참고: 기존 밀양대학의 입학정원: 1,260명, 2005년 신입생 등록률: 83%) 3. 위 2의 요구안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부산대학의 생명과학분야 학부를
- 밀양캠퍼스로 이전 할 것(불가능할 경우 예체능관련대학을 이전할 것) 4. 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의 정원을 늘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
- 5. 통합된 밀양캠퍼스는 〈청학캠퍼스〉가 아닌 〈밀양캠퍼스〉로 정식명칭 을 정할 것.
- 6. 통합 후 정부지원금의 30%이상을 〈밀양캠퍼스〉에 투입할 것

밀양대-부산대 통합 밀양 시민 대책 위원회

深陽新聞

서기 2005년 5월 30일(월요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

밀양시의회, 밀양대 통합관련 대정부 건의서

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를간 열 이 통합취지에 동의하나 통합 후 2009년 15%를 준수하여 년도별 단 건말 수 있도록 밀암시 내이동 소 린 제90회 임시회에서 및양대하고 진상활을 삼펴보면 다소의 통합리 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평생교 채 (구)및양대하고 보지통을 대화 와 부산대학교간 통합과 관련한 대정부건의서를 체택하여 교육인 다"고 밝혔다. 적자원부에 건의서를 보냈다.

대정부건의서는 박영태의원의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 생명자원과학대학과 나노과학대 한 비율로 밀양 캠퍼스에도 배분 발의자 반영태 의원은 제안성명을 통해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열 산업기술대학을 포함한 3개 단 연계된 다양화, 특성화된 대학으

밀양시의회(의장 장의근)는 5 대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다고 보 정의 조정기준을 2007년 10% -가 적시됨에 이의 개선을 건의한 육원은 활성화하여 만학의 교육기

간의 통합이 교육정책의 효율화와 과대학으로 증설, 두 학교의 통합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 통합의

회가 살의 집 향상으로 이바지 함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재 통합 수 있도록 조치, 통합과정에서부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학계열 터 받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몽둥 학 2개 단과대학 설치안을 이공계 되어 정부가 지향하는 산업수요와

이세티브 차일에서 지역발전을 촉 시설 및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양 대학의 봉합이 정부가 지화하는 대하구조 개혁의 본보기가 됨과 동시에 기 존 명양대 학생들과 명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밀양대-부산대 통합 나노-바이오 집중



지난 3월 31일 밀양대와 부산대 간의 대학통합 합의각서 조 인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논의를 펼쳐왔던 일양대와 부산대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통합되어 부산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밀양대-부산대품 비롯 하여 전남대 · 여수대, 강원대 · 삼척대, 강복대 · 상주대, 홍주 대 · 청주파학대 등도 합쳐지는 등 10개 국립대가 내년부터 5 중심 인프라를 활용, 나노 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게 된

교육부는 나머지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 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찬211명(방송대 제외 땐 4찬511 명) 짧이고 수도권 7개 사립대는 같은 기간 전체의 10%인 3천 170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 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폐합에 10개 대하이 합의하여 캠퍼 스벨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의 선도대학분야에는 전 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가능성 및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 및 액수를 정한 뒤 800억원 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밀양대와 부산대간의 통합을 불러싸고 홍수통합 내지는 밀양대와 밀양의 발전을 위한 신입생 모집과 밀양대 내이동캠퍼스 등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집행 될 것을 진망되고 있다.

밀양대, 동물 유전체 개발 주도한다

워크샵 개최, 소·말 연구 주력 고부가 창출

지난 8일 국립밀양대학교 (총장 이상학)에서는 동불유 전체개발연구단 위크숍 및 중 간진도 관리 발표회가 개최되

농촌진흥청에서 한국 농업 생명공학연구의 획기적 발전 을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바이그린21사업 중 등물 유전체 연구 분야의 최고 전문 가장이 '06년도에 이루어진 연 구 성과를 발표하는 이날 행사 에는 밀양대 이상학 총관을 비 못한 대학관계자와 전국에 망 라한 전문연구 교수 등이 참석 하여 동물유전체를 활용한 연 구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과제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날 위 크숍에서 정밀지도를 이용한 가축의 주요경제행질에 관한 유전자 구명(영남대 김종주 교 수) 및 복잡한 생물학 과정을 이해하는데 DNA chip을 이용 하는 기법 (고려대 이렇구 교 수)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 으며 한우, 돼지 및 닭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 및 향후 발전방 항을 논의하는 등 열기 넘친 위



크숍이 이루워 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 내 동불유전체 연구의 전 분야 를 망라하여 54세부 과제의 발 표가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 여 Nature Genetic에 게재(서 울대 김희발 교수)되는 등 세 계적인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최근 즐기세포를 이용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몸 불유전체 분야에서는 이를 뜃 반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취 적인 유용유전자를 탐색하고 유전자지도 작성, 고급육 생산 을 위한 유전자 탑색 등 유전자 차원에서 보다 희기적인 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가 되었

밀양대학교에서는 이용 기 반으로 하여 향후 격남지역의 생명공학 연구의 메카로 발돋 움 치기 위한 포석을 다지는 시 급석으로 노력하고 있다. 밀양 대학교는 특히 말, 소에 대한 국내 동물유전체 연구를 주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東亞日報

2005년 10월 06일 a08면



부산대와 밀양대는 구성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상생전략으로 통폐합을 성사시켜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대 캠 퍼스 본관에 통폐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신=회재호 기자 choln@20ctorps.com

양보해서 '윈윈

밀양대

두 총장 리더십 발휘… 관련학과 맞교환해 특성화 이뤄

*통합 승인이 나와 기쁘지만 우리 학교 가 없어진다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밀양대가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 으려면 부산대로 거듭나고 세계적 대학 이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 경남 밀양시 밀 양대 구내식당에서 열린 부산대와의 통 합 자축 행사에서 밀양대 이상학(李相 學) 총장은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 다. 직원들도 착잡한 표정이었다.

김동화(金東華) 교수회장은 "큰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 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교수 교직원 모두 희비가 교차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와 밀양대는 치밀한 준비와 특 성화 전략으로 통폐합을 이뤄낸 모범 사 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대인 밀양대는 본고사를 치러야 할 정도로 지원자가 넘쳤지만 2002년부 터 신입생 미달 현상이 시작됐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74%까지 내려갔고 학 생 수준도 떨어져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지난해 7월 밀양대가 통합을 먼저 제 의한 데 이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방 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 성하는 등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반면에 농대가 없어 연구에 한계를 느 끼던 부산대는 밀양대 농대를 흡수하고 시 외곽에 최신 시설을 갖춘 밀양대 캠 퍼스를 활용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한때 밀양시민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양 대학 총장들이 교수, 학생, 시민을 상 대로 수십 차례 설명회를 여는 공을 들 인 끝에 90%의 찬성을 얻어 올해 3월 31일 통합에 합의했다

통합에 따라 양 대학은 2006학년도부 터 부산대 215명, 밀양대 720명 등 935 명의 신입생을 감축하고 유사·중복학과 를 통폐합한다. 밀양대의 3개 단과대와 산업대학원을 없애는 대신 부산대의 최 첨단 분야인 나노과학기술대를 밀양캠 퍼스로 옮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캠퍼스는 인문사회 자연계열, 밀양캠퍼스는 나노과학 및 생 명자원, 양산캠퍼스는 의치의학 분야가 집중 배치된다.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 도 유치했다.

총장직을 포함해 밀양대의 3처 1국 5과 를 없애고 2개 단과대의 최소 조직만 유지 한다는 방침. 교수와 교직원의 신분은 일단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론 정담할 수 없다.

부산대 김유근(金有根) 기획협력처장은 "통폐합으로 3년간 50억 원의 예산 절감 과 교육 특성화가 기대되지만 실제 통합 효과는 80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밀양대 정주현(鄭珠鉉) 총학생회장은 *내년 신입생부터 부산대 학생이 되지만 현재 재학생은 혜택이 없다"며 "재학생 도 부산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통폐합 성사는 두 대학 총장의 리더십 과 상대 학교에 대한 배려가 결정적이었 다고 교수 교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부산대 김인세(金仁世) 총장은 취임 2년 만에 8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교수, 교직원, 학 생, 시민을 끈질기게 설득해 동의를 얻 어냈다

밀양대 이 총장도 지난해 3월 총장 선 거에서 "통합이 성사되면 즉시 사퇴하고 실패해도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 다. 류호경(柳浩景) 기회처장은 "총장이 자기희생을 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 했다

부산·밀양=이인철 기자 inchui@donga.com



부산대

12개 단과대학, 41개 학과, 16개 학부, 2개 학과군. 7개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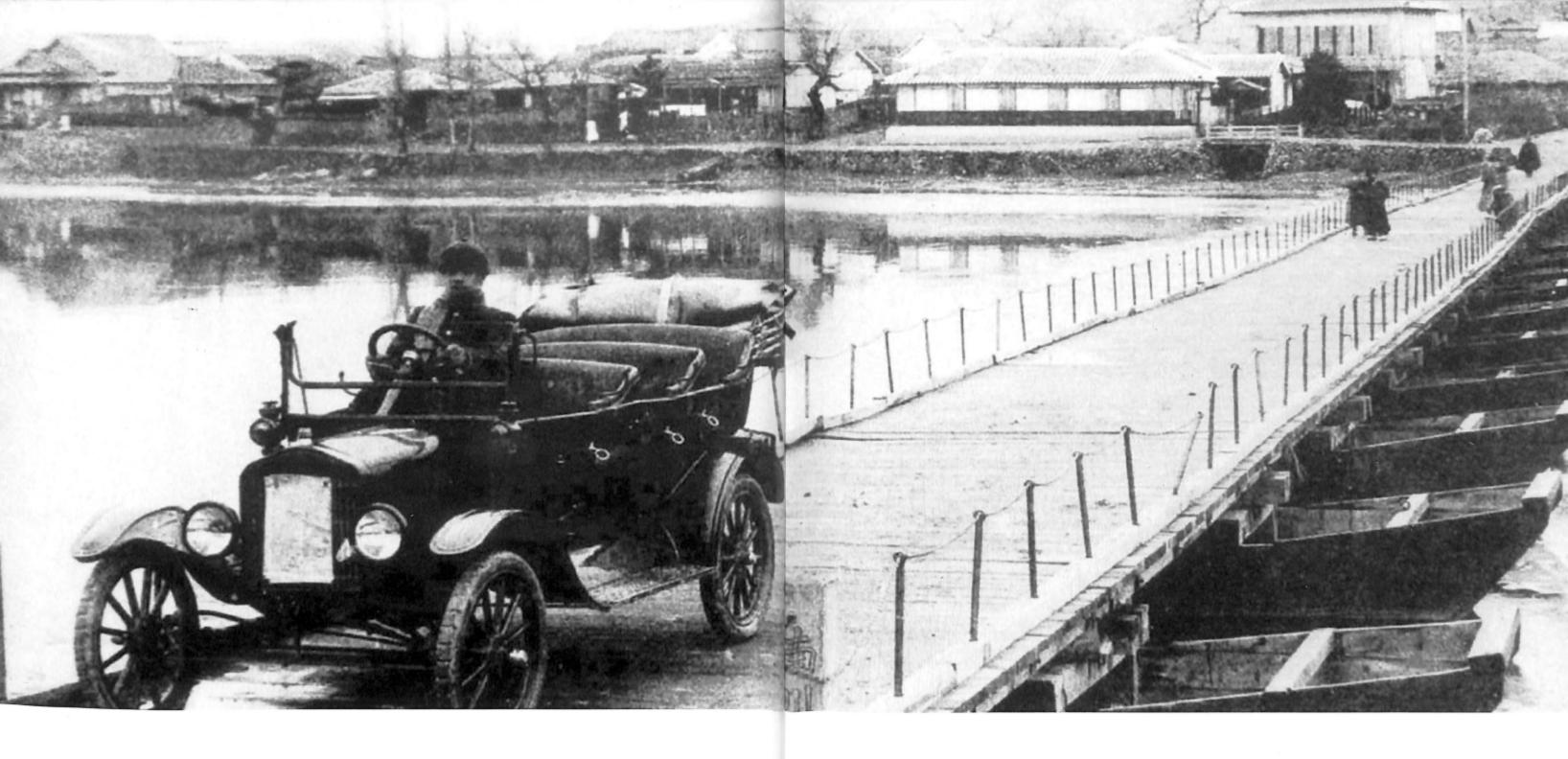
- 대학원생 포함
- 재적학생 수 3만590명 전임교원 수 943명
- 교직원 수 451명



3개 단괴대학, 13개 학과, 7개 학부, 1개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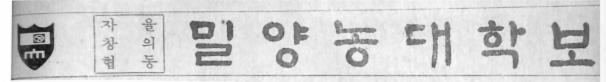
- 대학원생 포함 재적학생 수 6844명
- 전임교원 수 117명 • 교직원 수 81명

등합 대학 현황 2005년 6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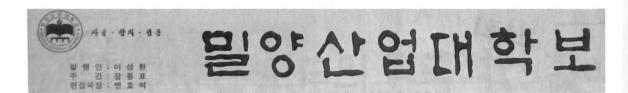
학보를 통해본 밀양대학교의 역사 6 $(1981 \sim 2006)$















창간호(1981.6.9)



1983년 4월 18일자



1986년 10월 17일자



1987년 4월 17일자



1988년 4월 11일자



1989년 4월 17일자



1989년 4월 27일자



1989년 11월 15일자



1990년 3월 28일자



1990년 9월 27일자



1991년 3월 13일자



1991년 9월 13일자



1992년 4월 27일자



1992년 11월 18일자



1993년 3월 15일자



1993년 4월 28일자



1996년 6월 7일자



1996년 9월 6일자



1997년 6월 10일자



1997년 4월 9일자



1997년 9월 8일자



1997년 8월 7일자



1997년 10월 20일자



1997년 12월 8일자



1998년 9월 28일자



2000년 9월 25일자



2004년 3월 9일자





SOME SE SERVICE A C

2004년 3월 9일자



2004년 5월 11일자



2005년 3월 8일자



2005년 10월 4일자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 식사

오늘 영광스러운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학사 865명, 석사 40명의 학위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 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학위수여식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태길 전 총장님, 하운도 선생님, 임수복 동창회장님, 윤주식 기성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낭만과 추억으로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나는 여러분께 저는 축하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지식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이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지식산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사회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로 지식산업의 주역이 될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교육학에서는 학습경험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것은 간접경험입니다. 대학에서 잠깐 배운 짧은 지식으로는 아직 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학교에서의 모범생이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창회장님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아니라 성실성과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지식이라도 현장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졸업생이 가진 좋은 인간성, 그리고 성실함이 우리의 소중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의 보장됩니다. 계속 노력하는 사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밀양대학교에서 거행되는 마지막 학위수여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회고해 보면, 우리 대학은 내이동 캠퍼스 시대를 마감하고 청학 캠퍼스시대를 맞아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에서 학업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과 교수님들의 열의 찬 지도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70%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동창회 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여러분, 기성회장님을 비롯한 학부형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교인 밀양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명문 부산대학교에 어우러져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의 축복 이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식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15,

밀양대학교 총장 이 상학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



사진으로 본 82년 「**아! 밀양대학교」**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이 태교수 위 원 이 한 성교수 조 재 환교수 간 사 장 현 종



2006년 2월 21일 인쇄 2006년 2월 27일 발행

발 행 밀양대학교 대학홍보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 TEL: 055)350-5100(代)

인 쇄 동성출판인쇄사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73-1번지 TEL: 055)353-5515 등록 No.제17-08-95-15호

(비 매 품)

© 2006, 밀양대학교 대학홍보실 이 책의 저작권은 밀양대학교 대학홍보실에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엄중히 급합니다.

